박 사 학 위 논 문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김 선 희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천근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Organization Achievement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Focusing on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s in Seoul-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김 선 희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최천근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Organization Achievement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Focusing on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s in Seoul-

위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김 선 희

김선희의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선 희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으로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본 연구는 자치회관이라는 조직에서 주민자치위원 간 의견이 상충할 때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자치회관이라는 중범위수준의 조직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다루는 연구는 없었으며, 특히 자치회관 수준에서 조직성과를 연구한 것은 처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측정으로 깊이 있고 정교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사회적 자본 이론을 이용해서 다룬 것도 처음이다. 이 연구에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치회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치회관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을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식조

사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치회관 수준에서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가운데 한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정량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 지표를 도출했고,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 이론을 살펴보았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와 관련해서는 기존 선행연구 이론을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목적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들 위주로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을 지역할당방식으로 임의추출한 자치회관 의 주민자치위원 439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자본 중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집단효능감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나타나는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에 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초적인 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다. 아울러 객관적 지표로 자치회관 23곳에 대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수실적, 프로그램 참여율,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토대로 기술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자를 위하여 이론적 기여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로서 중요성이 있다. 아울러 향후 자치회관 조직성과 평가에서 나타난 드러난 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연구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회관의 전문적인 프로보노(재능기부 활동) 활성화로 역량있는 주민자치위원의 프로보노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주민자치위원의 프로보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자치회관 우수사례 평가에 있어서 세대별·계층별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발현이 될 것이다. 이는 기존 분야별 평가와 유형별 평가에 기초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을 위한 유지와 더불어 자치회관에 대한 신뢰가 지역참여에 대한 관심으로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전문성 있는 상근 실무자의 배치와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현재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임명한 간사나 자치회관 담당자에 의하여 사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는 자치회관 업무의 체계화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자치회관의 수강료 기준에 대한 통일성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현재 같은 자치구라도 지역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다. 지역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수강료에 따른 기준은 필요하므로 향후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수강료의 통일성은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자치위원의 집단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효능감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최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도 자생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듯, 주민자치위원의 집단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과 확대 그리고 자치회관의 활성화 및 자치회관 평가에 있어서 이론적인 기여가 기대된다.

【주요어】 사회적 자본,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조직성과,

목 차

I. 서 론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 11

2.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 ····· 11
2.1.1 사회적 자본의 개념 ····· 11
2.1.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 12

2.2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점별 연구 ····· 21
2.2.1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 21
2.2.2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 24
2.2.3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 28
2.2.4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 13
2.2.5 사회적 자본의 행정학적 함의 ····· 23
2.2.6 국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 35

2.3 자치회관 ····· 39
2.3.1 자치회관의 도입 배경 ····· 39
2.3.2 자치회관의 설립 목적 및 역할 ····· 41
2.3.3 자치회관의 운영 및 기능 ····· 42
2.3.4 자치회관의 구성 ····· 46

2.4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 53
2.4.1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개념 ····· 53
2.4.2 자치성 ····· 61
2.4.3 프로그램 참여성 ····· 63
2.4.4 공익성 ····· 66
2.4.5 집단효능감 ····· 69

III. 연구방법 ····· 71

3.1 연구모형 ····· 71
3.2 연구가설의 설정 ····· 72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83
3.4 실증 연구의 방법 ····· 86

IV. 연구결과 ····· 94

4.1 조직성과의 객관적 자료 분석 ····· 94
4.1.1 기술통계분석 ····· 96
4.1.2 상관관계분석 ····· 97

4.2 설문조사 자료 분석 ····· 99
4.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99
4.2.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 101
4.2.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 115
4.2.4 기술통계분석 ····· 120
4.2.5 상관관계분석 ····· 121
4.2.6 인과관계 회귀분석 ····· 123

V. 결 론 ····· 138

5.1 연구결과 요약 ····· 138
5.2 시사점 ····· 141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 145

참고문헌 ····· 147
부 록 ····· 165
1. 설문지 ····· 165
2.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운영 현황 ····· 169
3. 2013년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 결과 ····· 172

ABSTRACT ····· 174

표 목 차

<표 1> 사회적 자본에 관한 개념 ····· 11
<표 2> Coleman의 신뢰와 상호부조와의 관계 ····· 41
<표 3> 사회적 자본 연구의 주요 학계 관점 ····· 43
<표 4> 사회적 자본의 분석 단위와 수준 ····· 73
<표 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04
<표 6> 자치회관 운영분야별 내용 ····· 44
<표 7> 자치회관의 기능별 내용 ····· 54
<표 8> 주민자치회 유형 ····· 6
<표 9> 주민자치회 시범 최종 선정지역 ····· 15
<표 10>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설치 현황 ····· 55
<표 11>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의 수 ····· 55
<표 12> 2013년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운영 평가지표 ····· 65
<표 13> 객관적 자료분석을 위한 자치회관 추진 실적 지표 ····· 16
<표 14> 변수의 조작적 정의 ····· 8
<표 15> 권역별 자치구 현황 ····· 68
<표 16>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 8
<표 17> 설문지 구성 ····· 09
<표 18> 자치회관 객관적 자료 분석을 위한 산출식 ····· 59
<표 19> 객관적 자료 기술통계 분석 ····· 69
<표 20> 객관적 자료 상관관계분석 ····· 9
<표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01
<표 22> 사회적 자본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03
<표 23>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 4
<표 24> 신뢰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 6
<표 25> 사회참여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 8

<표 26> 호혜성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 10
<표 27>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 12
<표 28> 자치성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 41
<표 29> 프로그램 참여성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 61
<표 30> 공익성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 71
<표 31> 집단효능감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 91
<표 32> 기술통계분석 ····· 121
<표 33> 상관관계분석 ····· 2
<표 34> 사회적 자본이 자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
<표 35> 사회적 자본이 프로그램 참여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7
<표 36> 사회적 자본이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31
<표 37> 사회적 자본이 집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01
<그림 2>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 및 성공모형 ····· 25
<그림 3>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6
<그림 4> 연구모형 ····· 7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으로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를 돌아보면 이웃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은 이웃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주고받았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작용한 예로, 마을 공동체에서 어떠한 이익관계 없이 서로 도와주는 두레나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서로 간에 품을 지고 갚는 품앗이 등의 사회적 자본의 미덕을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활동으로 실천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가옥의 구조도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가정의 집은 담장이 낮은 형태로, 외부에서도 집 안 내부를 훤히 볼 수 있어 애경사가 생기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미덕은 산업화시대 도래 이후 급속한 사회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시화·다원화는 핵가족화, 공동주택거주, 잦은 이주, 약자에 대한 배려 인식의 상실, 익명성 등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며 개인주의의 확산과 사회분화로 표출되고 있다. 아울러 전통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공동체의 삶이 해체되는 경향을 띠고 있기도 하다. 앞 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은 사람들 간의 소통의 부재로 불신을 조장하고 이웃과의 단절에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배려적 사고(Lipman, 2003)의 부족에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특성인 다양성과 분절성 그리고 복잡성으로 인해 협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자본을 대안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학문적 관심과 함께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김선희, 2008: 11). 최근 정부도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으로 '사회적 자본'을 지목하였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사회적 자본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무형의 인프라인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대한민국 청와대 블로그, 2013). 전통사회에서 보여준 배려적 사고의 미덕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뿐, 사람들의 삶과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사촌'이라는 전통사회에서 공동체의 형태는 현대 사회에서 자치회관이라는 커뮤니티 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치회관은 1999년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오승은, 2012: 69). 자치회관의 기능을 살펴보면 주민 간 정보교환, 상부상조의 장소로서 이용되는 자치회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공동체로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기능이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2,699개로 서울특별시는 423개의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의 자치회관은 잊혀져가는 공동체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가선용, 생활정보교환 등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연구가 거시적이거나 미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적이 없는 자치회관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 공동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지향, 사람다운 삶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리며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Coleman, 1998; Fukuyama, 1995;

Knack, 2002; Putnam, 1995a; 2000).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양의 현안에 대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무형자원의 역동에 대한 가치로 인식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는 무형의 자산으로 물질적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간 공고한 연대의식으로 화합과 결속을 이루고, 사회적 맥락을 이루는 주체 간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홍영란, 2007). 사회적 자본은 현대인에게 배려적 사고의 미덕과 공동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자치회관은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 안에 있는 현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해마다 자치회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기여한 자치구 및 자치회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치회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평가를 통해 자치회관 운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자치회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한상우, 2009: 10).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운영평가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각 자치구와 자치회관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평가제도이다. 그러나 조직성과를 협소하게 능률성만 연계하여 정의하고 다른 가치들 –형평성, 공정성 등– 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Behn, 2003; Brewer & Seldon, 2000; Rainey & Steinbauer, 1999; Boschken, 1994; Kaplan & Norton, 1992: 남승하, 2008: 173).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우수사례는 지역적 및 행정적 여건 등으로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형

평성을 고려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하여 엄정하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우수사례 평가는 부족한 점뿐만 아니라 우수한 부분에 대한 독려와 더불어 컨설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우수사례 평가는 2012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성북구와 한성 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역연계와 관련한 네트워크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자치회관 우수사례 평가는 공익성을 우선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모여 조직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이라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호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은 자치회관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태어 현재 연구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국가별 및 정부 등 거시적인 분석단위나 개인 단위의 미시적인 수준의 분석이 되고 있음에 본 연구에서는 중범위 수준의 조직인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이것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치회관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측정으로 깊이 있고 정교하게 분석한 것도 처음이다. 또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사회적 자본 이론을 이용해서 다룬 것도 처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범위 수준의 분석단위인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고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 이유는 자치회관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았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1 연구의 범위

사회과학에서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협력적 규범, 사회적 통제와 같은 개념에 주목해왔으며 최근에는 Coleman(1990)과 Putnam(1993)에 의해 유명해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통해 협력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를 설명한다(Coleman, 1990; Fukuyama, 1995; 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은 그 자체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성과의 기반 또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인정되어왔다(Akdere & Roberts, 2008; 홍영란, 2008: 11).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자본은 많은 연구가 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Halpern, 2005). 그 기본 논리는 사회적 자본의 존재와 유지를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를 해결할 수 있고, 개인들과 집단들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회관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초 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개편하면서 설치된 자치회관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자치 의식을 높이고,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구심체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회관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리더들은 애향심과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하며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매년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업적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개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 이론이 한국의 자치회관 수준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의 분석 수준은 거시적이거나 아니면 미시적이다. Putnam의 연구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nations) 또는 주 단위(states) 수준에서 연구하였고, Fukuyama (1995)도 6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의 신뢰수준과 경제적 발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Coleman(1990)은 개인수준에서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 이론의 적용은 거시적인 접근이나 미시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며, 자치회관과 같은 중범위 수준에서는 대단히 미흡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을 분석단위로 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분석단위의 구분은 한국자치학회에서 구분한 권역별 자치구 현황을 기본으로 지역할당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평가를 위하여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자치회관이라는 공간적 개념에서 실질적인 활동가로서의 주체가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439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회관 23곳을 대상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사회적 자본은 사회체계에 기초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집단이나 조직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집단과 조직 자체에 대하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있는 개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회관 수준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인식하는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특성 중 하나는 다차원(multidimension)적인 개념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작용을 하기 보다는 각각의 구성요소로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를 도출하여 이용하였다.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곳이기에 인간관계 또는 집단 간에 상호신뢰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신뢰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자치회관은 주민의 참여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곳이기에 두 번째 구성요소로 사회참여를 도출하였다. 호혜성은 상호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둘러싼 사회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 번째 구성요소로 호혜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이웃 및 지역과의 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자치회관이라는 공간적 개념에 대한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바람직하나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성패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고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고 연구방법을 설계했으며,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부분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목표로 하였다. 첫째,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한 국내외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느냐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공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Coleman, 1990; Fukuyama 1995; 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을 통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information)과 자원(resources)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ix and Posner,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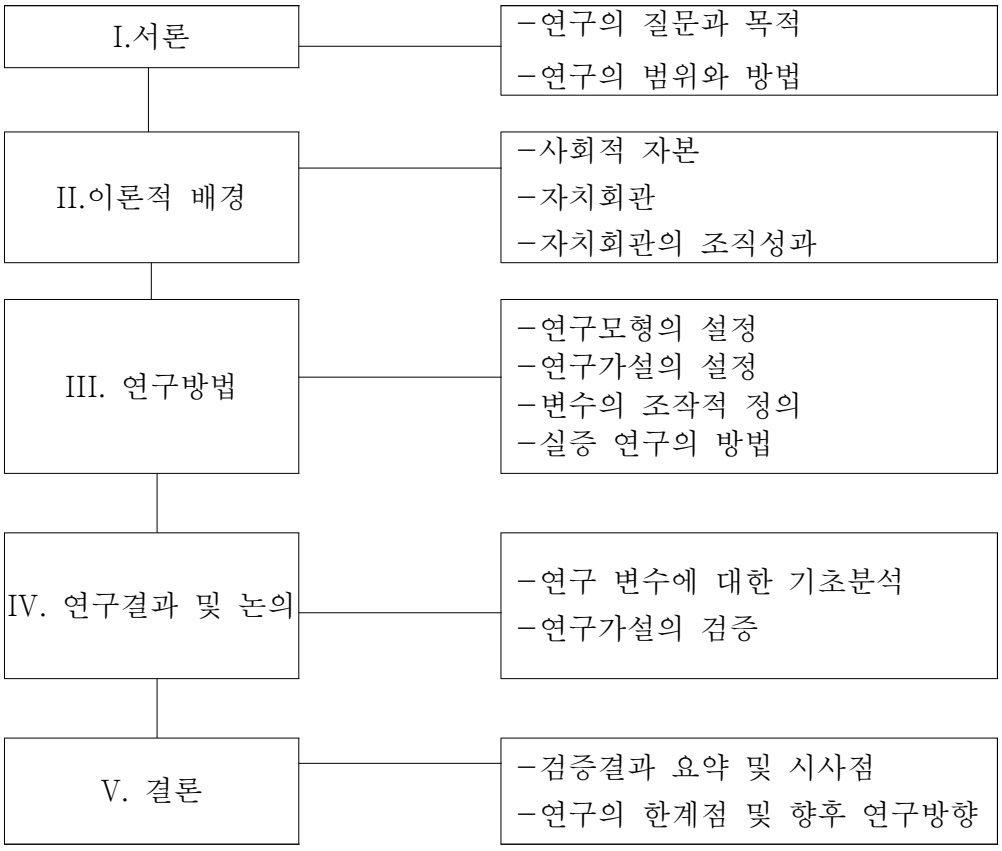
둘째,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실증연구 검토를 통해 "자치회관"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Bain and Hicks (1998)의 경우, 구조적 사회적 자본(structural social capital)과 지각적 사회적 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로 분류하고, Woolcok and Narayan(2000)은 대분하고, Narayan(1999)은 결합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결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다양한 구성요소를 지닌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 수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성과지표로 주관적 성과지표(subjective indicators)와 객관적 성과지표(objective indicators)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치회관의 제도적 지향점이 주민의 참여 확대, 공동체 활성화, 공익성 추구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 연구의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하였다. 특히, 매년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회관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관적 성과지표의 측정을 위하여 2013년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439명을 대상으로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을 측정하고 이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도출된 조직성과의 구성요소인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출되었다. 첫째 자치성은 자치회관의 기능의 운영분야에서 도출되었다. 자치회관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이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재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적 운영 외 여러 부분에서 자치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참여성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참여성로 나타나고 결국 자치회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지역주민 스스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기에 도출하였다. 자치회관은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곳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공익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효능감은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치회관의 기능(주민자치, 문화여가, 주민교육, 주민편익, 지역복지, 지역사회진흥)을 토대로 하여 도출하였다. 부족하지만,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성과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량적 평가 자료를 조사하였다. 정량적 평가의 자료는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평가결과 중 23곳의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객관적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치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은 자치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기초로 주민자치아카데미 참여 인원수를 자치성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에 아카데미 참여 실적을 자치성으로 설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성에 대한 도출은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인원수를 토대로 하였는데 이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도 사업비의 재정을 충당하는 일부분으로 작용하기에 프로그램 참여성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자치회관은 공익성이 우선하는 공간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공익성은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로 도출하였으며, 자치회관의 여러 기능 중 주민자치위원이 추진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를 집단효능감으로 규정하고 구성요소로 측정을 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자치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회관 우수사례에 따른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자치회관 운영보조금은 차등 지원(최우수 1개구 90백만원, 우수 14개구 각 60백만원, 장려10개구 40백만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된다. 넷째, 사회적 자본

및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면 일변량 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과 같은 기본 연구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과 및 해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사회적 자본 중 자치회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중범위 수준의 자치회관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을 유도하고,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 도출 및 자치회관 활성화 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II.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

2.1.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웃, 지역사회, 조직, 국가 및 국제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되고 있다(Serageldin & Grootaert, 2000; Woolcock & Narayan, 2000). 사회적 자본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한다(Putnam, 1993). 다음 <표 1>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사회적 자본에 관한 개념

연구자	개 념
Lyda J. Hanifan(1920)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대부분에서 중시되는 선의, 동료애, 공감, 사회적 교류
Jane Jacobs(1961)	연결망은 대체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
Mark Granovetter (1973)	사회 전체의 거시적인 성과를 증진시키는 집단적 공유자원·느슨하게 연결된 사회적 네트워크
Loury, G.(1977)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능력
Ronald Burt (1982)	친구, 동료, 일반적 교제를 통해서 얻는 재정적·인적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
Pierre Bourdieu (1986)	지속적인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James S. Coleman (1988)	신뢰나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이면 어느 집단에나 존재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

Schiff(1992)	일련의 사회구조적 요소들로써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 및 효용 기능을 위한 투입요인이나 전제들
Robert D. Putnam (1995)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 조정과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형태
Francis Fukuyama (1995)	집단과 조직의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Nan Lin(2001)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
Cohen & Prusak (2001)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활성화된 관계의 스톡(stock)이며 이는 신뢰, 상호이해, 그리고 인간네트워크와 공동체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가치와 행태
Grootaert (2001)	미시·중시·거시 수준으로 구분되며 미시 및 중시에서 네트워크와 규범을 의미하며 거시수준에서는 공공제도 포함
The World Bank (2002)	시민참여, 상호믿음, 공공기관에서 자신감
Grootaert 외(2004)	인간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 및 관계의 본질과 범위
Chase & Holmemo (2005)	지역사회를 조직화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집단 구성원간 신뢰, 포용, 네트워크, 집합적 행동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 영역포함

출처: Adler & Kwon, 2000; 홍영란, 2008: 21 ; 연구자 재구성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종합하여 볼 때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상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 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2.1.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은 개념에 따라 구성요소도 다양하게 논의되며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다차원(multidimension)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측정지표로 하여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양하게 구성된다. 연구의 초점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 차원, 인지적 차원, 관계적 차원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되기도 하고 내부적 사회적 자본과 외부적 사회적 자본 차원의 요소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이하기 때문이며,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서 연구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이다. 자치회관은 지역의 구심체로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주민의 협력은 연대의식으로 발전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은 지역주민 간 신뢰가 쌓이며 지역을 위한 공익성이 우선되는 공간으로서 호혜성과 주민자치위원간의 집단효능감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의 측정을 위하여 학자들이 공통적인 구성요소로 다루고 있는 신뢰(trust), 호혜성(reciprocity),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네트워크(network)를 살펴보았다.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은 자치회관이라는 조직성과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뢰

신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끌어 주는 끈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구성요소인 신뢰는 조직의 소통으로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사회체계이론에 기초한 사람들 간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황진성 외(2011)는 신뢰에 관한 비교실험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특히 신뢰는 우리 사회가 축적해야 할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요소이

며, 그로 인해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김장학, 2009: 15).

Fukuyama(1995)는 사회에서 신뢰가 충만되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능력으로 신뢰 자체를 사회적 자본의 기본 특성으로 보고 있다. 신뢰는 사회나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개념으로 국가의 경쟁능력과 번영 창출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신뢰가 사회협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의 범위가 사회 전체, 즉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이동원 외, 2011: 149).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는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정우, 2006; 이숙종 외, 2009). 신뢰는 조직의 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정직, 약속이행, 의무준수, 상호주의 등 사회결속을 이루는 전통적 미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Fukuyama, 1999).

Coleman은 세 가지 유형으로 신뢰를 분류하며 상호부조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신뢰의 유형은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박세경, 2008: 42).

<표 2> Coleman의 신뢰와 상호부조와의 관계

신뢰의 유형	상호부조와의 관계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	구체적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음.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상호부조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호부조(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라고 명명 되며 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공유된 가치나 행동에 대한 기초를 전제.
제도	공식적인 거버넌스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규칙의 공정성과 공식적 절차, 쟁점의 해결이나 자원배분 등에 의해 형성.

Coleman(1988)의 신뢰와 상호부조와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개방된 사회구조에서는 신뢰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의무나 평판이 폐쇄적인 1차 집단

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이미숙, 2011: 22).

Putnam(1993)은 초기에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탈락시킨다(박세경 외, 2008: 41). Putnam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속성으로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는 호혜성의 규범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뢰 자체는 사람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속성일 뿐 그것 자체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이에 한상미(2007)는 신뢰관계의 대상에 대한 양적·질적·중첩성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세경외, 2008: 41).

Bjørnskov(2006)에 따르면 단체 활동과 사회적 신뢰의 상관관계는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단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 신뢰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사회관계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간의 신뢰의 증진은 지역사회의 집합적 행동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다고 할 수 있다(Putnam, 2000; 이미숙, 2011: 22).

Onyx 와 Bullen(2000)은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의 신뢰는 그 관계망 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적이라는 기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Osterling, 2007; 박선희, 2012: 20).

Zucker(1986)는 신뢰를 과정의존적인 신뢰와 특성의존적인 신뢰, 제도의존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과정의존적 신뢰는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축적되는 신뢰를 말하며, 특성의존적 신뢰는 한 개인이 속하는 귀속적 특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뢰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존적 신뢰는 공식적인 제도가 제공하는 신뢰로 학위나 자격증에 의해서 부여되는 신뢰를 말한다(박선민, 2011: 23).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다양한 교류의 촉진이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협력과 이익의 극대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2. 사회참여(participation)

사회참여는 공동체나 결사체 또는 조직에 소속하여 활동할 때를 말한다. 즉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결사체 및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는 개인이 속한 사회 체계 환경에 따른 참여에 대한 수준과 강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것은 국가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증대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Putnam, 1993; Coleman, 1990; 유재원, 2000). Putnam은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SCCBS)에서 참여 중심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다(홍영란 외, 2007; 조권중, 2010: 54).

Putnam(2000)은 또한 사회적 자본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제공하였으며, 인간의 수명이 사회적 연계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참여, 개인의 활동이 개인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면역체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Woolock 외(1998; 1999; 2000) 역시 사회적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사망률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Woolcock은 건강한 사람들이 사회적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을 함으로 건강해진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홍영란 외, 2008: 48).

Carcach & Huntley(2002)는 범죄와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공동체 자체적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 연대가 강할수록 효율적(홍영란 외, 2008: 50)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에 따라서 사회단체 또는 공동체에 자발적이거나 사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참여한다. 이는 참여의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의 강도를 기준으로 하면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컨대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을 논의할 때는 주로 사회적 또는 집합적 수준의 참여를 지칭한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이 개인에게 혜택을 주지만 개인이 얻는 이익과 혜택이 집단이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는 비공식적 참여가 점차 사회적 또는 집합적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에 지역 사회 활동의 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Putnam, 1993; 2000).

Putnam은 2000년 미국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시민들의 참여율을 떨어트렸다고 지적한다(Putnam, 2000: 699). 이러한 결론은 사회적 자본이 감소했음을 의미하고 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호혜성(reciprocity)

호혜성은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대이다. 호혜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교환에서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호혜성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은 Sahlins(1972)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도덕적 의무감을 핵심으로 하는 호혜성을 이해관계,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 차원을 통해 일반화된(generalized) 호혜성, 균형잡힌(balanced) 호혜성, 부정적(negative) 호혜성으로 정교화 하였다.

Sahlins는 사회적 교환 관계의 호혜성에 대해 무엇보다 나의 권리를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로 받아들이는 상호인식이 도덕적 의무감으로 될 때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김기홍, 2006: 19). 또한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호혜성의 규범과 가치로 나타난다(구혜정, 2002: 29).

여러 연구자들은 호혜성을 언급할 때 "규범", "호혜성의 규범", "호혜성", "상호 호혜성" 등 같은 여러 단어를 활용하여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Coleman, 1988; Putnam, 2000). 사회적 자본으로의 규범은 상호 호혜성을 기본 속성

으로 하는데, 호혜성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전한 특징이 있다. Coleman은 상호부조의 규범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고 집단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게 하며 사회적 지원, 지위, 명예 등 다른 보상에 의해 강화된다. 즉 자기억제적 행동에 대한 외적 보상을 통해 이기적 행동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집합적 생활에 존재하는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Coleman, 1988; 박세경 외, 2008; 박선희, 2012: 29). 즉 행동에 대한 제약이나 억제는 일탈 행동을 규제하고 규칙이나 규율을 지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미숙, 2011: 24).

지역사회 내에서 규범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행동에 대한 불문율적(unwritten)사회적 규범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규범이 고유되며 사회 통제력을 가질 때 유익하다. Putnam(1993)은 일반화된 호혜적 규범(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에 대해 언급한다.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은 시민참여관계망의 기대를 통해 확고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효과적인 협력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자본의 본질적인 구성물의 하나로 일반적인 상부상조를 강조하였다. 한편 규범은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바탕이 된다. 조직 구성원과 각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조직의 자산으로 결합·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Friedrick, 1989; Boland & Tenkasi, 1995; 유정우, 2006: 59-60).

인간은 욕구(Maslow, 1943)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Vroom, 1964), 이러한 동기부여적 가치가 공유되면 사회의 규범으로서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에 배태된 규범으로서 호혜성은 적극적 차원에서 공동의 목표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과 존재의 인정을 추구한다.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호혜성에 관한 규범은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규칙으로 작용한다(박통희, 2010: 73).

지역사회 내에서 규범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행동에 대한 불문율적 사회적 규범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규범이 공유되며 사

회 통제력을 가질 때 유익하다(박선희, 2012: 29). 따라서 호혜성은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규범과 협력을 추구하는 공동의 인정이라고 정의한다.

4. 네트워크(Network)

네트워크는 개인과 조직이 속한 사회연결망 안에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의 이론을 설명하는 사회적 연결망 이론은 각 행위자의 연결망을 중심으로 사회구조를 파악한다. 이론에 의하면 사회구조는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개인 행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권장원, 2000: 11). 특히 사회적 연결망 안의 행위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규범이나 속성보다 연결망의 종류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Wellman, 1983; 박선민, 2011: 25).

각 개인의 상호작용의 연결망은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고 유지되며, 동시에 개인들에 의해 생겨나는 연결망의 전체 구조는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서로 안면이 없는 사람들 간에도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뢰의 메커니즘이라면, 상호 신뢰 위에서 관계를 보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구조화된 형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네트워크이다(김기홍, 2005: 22). Putnam은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공식적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본다. 또한 네트워크는 호혜성과 관련된 강력한 규범을 만들고, 이로 인해 약한 유대(weak ties)는 공동체의 응집력을 유지와 집단적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사회적 네트워크는 집합적 행동을 하는 실체를 형성하며 집단내의 공동선(Collective Goods)을 추구하여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한 사람의 집합적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Putnam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시민참여 사이의 밀도있는 사회적 연결망은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고 이는 다시 집합적 자본권력 혹은 부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김기홍, 2005: 23).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

구조를 구성하게 해 준다.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는 특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적 자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자본은 발생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행위자들과 그들을 묶어주는 관계들의 집합이다(최종렬, 2004). Bourdieu(1986)는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 네트워크가 성립되며 네트워크를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네트워크를 지속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이익을 위한 상호부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Putnam은 네트워크를 결속형과 연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결속형 네트워크는 내부지향적이고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학연, 혈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하여, 연계형 네트워크는 외부 지향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망라하는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민권운동, 청년 봉사단체, 초교파적 종교단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한편 비공식적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은 '특별한 신뢰'를 가지며 낯선 이에게는 매우 보편화된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를 갖게 되며, 공식적 네트워크 안에서의 신뢰는 정부나 경찰 또는 교회 등 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관에 대한 신뢰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반화된 신뢰와 비슷하다(Giddens, 1990; 박숙미, 2002; 한상미, 2007; 임우석, 2009: 32).

네트워크는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의 고정되지 않은 구조로 개인과 조직의 특성에 맞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즉 개인과 조직이 속한 사회연결망 안에서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에 대하여 정의한 후 이들 구성요소를 측정지표로 하여 중범위 수준의 분석단위인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도출하였다.

2.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점별 연구

사회적 자본은 사회과학의 범위에서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학문으로 발전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은 보편적 정의와 측정도구가 없고 사회적 자본과 발달 사이에 긍정적 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을 사회적 자본의 취약점이라 지적한다(Ponthieus, 2004; Chen, 2005; Harper, 2002; Woolcock, 1998; Castle, 1998; Sabatini, 2006; 박선희, 2012: 31).

한편 사회적 자본은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본질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학계 간 상이한 관점은 통합되어지고 있다. 이는 초기의 Coleman(1988, 1990)과 Putnam(1993)의 논문들에 의한 영향과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와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Serageldin & Grootaert, 2000; Woolock & Narayhan, 2000).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으로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음은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에서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론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의 행정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2.1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Alexis de Tocqueville(프랑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독립 초기 미국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19세기 미국의 민주주의를 조명하였다. Tocqueville은 미국에서 목격한 시민단체의 네트워크가 개인주의에 맞서 싸우고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했으며, 공공정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협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생활에서의 경험에 의해 시민생활에서 사회성은 협동과 자기조직의 방법을 통해 결속력이 경제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믿었다. 이를 통해 미국사회의 시민들이 조직한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Fukuyama, 1995: 353-354). 그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공공의 안녕, 상업, 산업, 윤리 및 종교를 증진하기 위한 결사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들이 어떤 공공 편의에 관한 한, 그 편의를 더욱 빛나고 규칙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결사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아울러 하나의 결사로 뭉친 개인들의 결합된 힘을 통해 인간의지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는 없다고 보았다(Alexis de Tocqueville, 2000: 261-262). Tocqueville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 정신, 지역사회의 공동의 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civic engagement), 공공재(common good)에 대한 개인적 책무와 소속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근대사회에 있어서 시민적 활력과 결사체 및 지방신문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견고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자신의 노력을 합침으로써 사적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문의 도움을 역설하였다(Alexis de Tocqueville, 2000: 517-518; Putnam, 1993: 141). Tocqueville은 조국 프랑스가 정부에 민주주의를 의탁하는 것과 달리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에서 미국의 활발한 시민사회에 충격을 받게 되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던 듯하다(Whittington, 2001: 22; 배유일, 2004: 135).

Putnam(1995, 2000)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그동안의 미시적 수준의 개념을 거시적 수준의 개념으로 확대시켰다. Putnam은 북이탈리아와 남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지역자치실험을 통해 제도 발전의 동태(dynamics)와 생태(ecology)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의 특성보다는 한 지역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박희봉, 2012: 50). 분석 결과 투표율, 신문구독률, 결사체, 공공기관 신뢰도 등 특정지표 활용으로 북이탈리아가 공공관리능력, 기관의 업무수행력, 개발비율에서 높은 결과가 나왔다(윤두섭·오승은, 2005: 392). 더불어 한 나라 안에서 같은 제도와 법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통해 남부는 위계적인 특징이, 북부는 수평적 결사체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도가 정치에 주는 영향은 신제도주의적인 접근의 맥락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자기강화적(self – reinforcing)이고 축적적(cumulative)이며 높은 수준의 협력, 신뢰, 호혜성, 시민적 참여와 집단적 복지라는 사회적 균형을 가져오는데 시민공동체가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체에서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의 밀도가 치밀할수록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요컨대 사회적 자본은 개인 재산이 아닌 공공재로서 축적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연구(1995)에서는 공동체의 붕괴로 인하여 시민적 참여로서의 정치, 단체, 종교, 일상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이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인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에는 지역사회 참여, 투정치 참여나 관심, 자원봉사 활동, 비형식적인 사교성, 신뢰와 같은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표 측정이 정확하게 측정됐는지 확신할 수 없다. 예컨대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utnam은 개인의 태도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했는데 신뢰의 기준 자체가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비교나 문화 간의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Kenneth Newton(1997: 575–586)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이 타인과 협력하고 신뢰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타인을 이방인이나 경쟁자 혹은 잠재적 적군이 아니라 동료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문화적 가치와 태도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자본과 정치 문화가 같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민주성,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를 핵심요소로 나누고 다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세 개의 개

념과 신뢰의 형태,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그는 19세기 고전적 토크빌리안 모델이 과장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현대 민주주의는 점점 신뢰와 연합의 상이한 형태에 기반을 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Freitag은 일본과 스위스의 일반화된 신뢰를 비교 연구 과정에서 두 나라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성장의 유사성이 정치 문화와 정치철학에 거의 유사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일본과 스위스가 도덕적 태도, 생활 만족도, 협회소속 회원의 영향이 다를지라도, 사회적 신뢰는 양쪽 국가에서 교육, 매일 텔레비전 소비(티브이 시청시간)와 세계적 문화(국가적 편견이 없는 문화)에 의존한다고 판단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두 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정치제도를 발전시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2003: 939-966).

2.2.2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각 집단들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자세가 강할수록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라 할 수 있다. '파이 키우기'는 한 집단 내에서 집단의 역동성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지를 시사한다. 거듭하여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문제를 국민 모두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국가경쟁력은 향상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EBS, 2010).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연구는 신경제사회학 분야의 학자들이 1980년대 들어서 동일한 조건에서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 것을 밝혀내면서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Fukuyama(1995)는 그의 저서 『Trust』 에서 경제적 번영에는 문화적 배경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를 꼽았으며, 내부의 그룹과 조직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보았다(Adler & Kwon: 2000). 더불어 강한 공동체적 연대를 가진 사회는

고신뢰 사회로, 공동체적 연대가 무너진 사회는 저신뢰 사회로 구분하며, 공동체적 연대와 결속을 경제적 도약의 기초로 삼았다. 그 밖에 6개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결과 신뢰와 경제적 번영과의 관계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가 산출하는 산업경제의 성격에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각종 사회에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신뢰의 테두리 정도에 따라 각각의 사회를 저신뢰 사회와 고신뢰 사회로 구분하였다. 고신뢰 사회는 강력한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하는 독일, 일본, 미국으로 각 구성원들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뢰능력이 있으며, CEO가 관리하는 대규모 민간 기업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저신뢰 사회는 파벌형성, 족벌체제 등 사적 신뢰구조를 가진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이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소규모기업이 존재하고, 국가소유나 국가지원을 받는 기업이 많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차이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뢰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가족과 국가 경영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규모의 민간조직을 시민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상정하고 있다. 사람을 모으는 단체구성능력은 신뢰에 기초하고, 단체구성 후에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함께 일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게 된다고 보았다(성기환, 2004: 70).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는 사회나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개념으로 국가의 경쟁능력과 번영 창출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Fukuyama, 1997) 기업 간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질, 타당성, 시기적절성을 보여준다(Adler & kwon, 2002: 17−40; 최기조, 2010: 86).

Ostrom(1997)은 공유자원을 정부통제나 사유화에 기대지 않고 잘 관리해온 공동체들을 연구사례로 제시해 자발적인 협력관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회에서는 공공 자산을 공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쓰지 않으면 마모될 수 있고, 보거나 측정하기 힘들고 외부적 개입을 통해 형성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 국가·지방정부제도가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형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Grotaert(1998)는 전통적으로 경제발전을 자연적, 물적, 인적 자본으로 설명해 왔지만 사회조직 안에서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경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관계, 태도 및 가치를 포함시켰으며, 사회적 자본이 사회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소진광, 1999).

Woolcock(1998)은 하나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는 정보, 신뢰, 호혜의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규모와 형태에 의한 결합에 달렸으며, 사회적 자본의 자격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의 형태는 밀착형, 결합형, 연결형으로 나뉘며 가족이나 종교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주로 밀착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동일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친구나 동료에서는 결합형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와 계층 간에는 연결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지역 사회 안에 존재하는 제도적인 틀을 넘어서 협력을 하게 되며 정보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밀착형 사회적 자본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강한 유대나 이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집단밖에 있는 외-집단구성원들을 배타하게 되는 역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극단적인 밀착형 집단으로 마피아 조직, 테러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호 신뢰나 협동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파괴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에 관여하고 있다. 한편 인간자본은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기술력 등으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측정하기가 어렵다(Woolcock, 2000).

Adler & Kwon(2000)은 사회적 자본의 생성은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며, 이 투자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비생산적이고 비용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에 의한 연계가 정보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연계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별 효과가 없게 된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 연결 관점과 결합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연결 관점은 특정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부여된 자원으로서 주되게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경쟁적 라이벌 상황에서 개인과 회사의 차별적 성공을 설명한다. 이에 비해 결합 관점은 집단적 행위자의 내부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집합체 내부의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연결, 특히 집단적 응집성과 집단 목표의 추구를 촉진하는 특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자의 관점은 네트워크의 외부적 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후자는 네트워크의 내부적 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혜원, 2005: 34)

Stilwell(2003)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수행에서, 2001년에서 2003년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역 내에서 지출과 지역경제에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정책개발 추진에 목적을 두었다(윤두섭·오승은, 2005: 5).

Partha Dasgupta(2009)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자산이고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 좋은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초기 Coleman과 Putnam 이후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 주의적 관계로 해석되며 이 관계는 익명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과거로부터 전승된 개인적 복종관계는 관료가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더하여 사회적 자본을 개인 간 네트워크로 보는 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하였으며, 경제성과는 제도에 달려있고 그 기능은 신뢰에 달려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집단 간의 신뢰가 거래 비용의 절약, 사회적 대립의 약화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어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황진성 외, 2010: 49). 경영학에서는 사회적 자원의 개념적 정의로 정서적, 존중감, 관계망 지원(Cobb, 1976), 도구적, 표현적 지원(Dean & Lin, 1977), 물질적 및 행동적 도움, 친밀한 상호작용, 정보제공 및 안내, 반응표출, 긍정적 상호작용(Barerra & Ainlay, 1983)으로 정의하고 있다(정기환 등, 2006).

Roth(2009)는 1980~2004년 간의 신뢰와 경제성장 조사결과에서 낮은

신뢰수준에서 신뢰의 증가는 성장을 증가시키지만 초기 신뢰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대인 신뢰 수준의 증가는 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음의 관계를 밝혀냈다(이병기, 2009: 53).

2.2.3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연결망이나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정광호, 2010: 2). 특히 사회적 자본이 출현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서 연결이나 관계를 강조한다. 1916년 Lyda J. Hanifan은 미국역사에서 '진보의 시대'라고 부르던 시기에 사회개혁가로서 적극적 활동을 펼쳤던 사람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고안해 설명하면서 시작되었다. Lyda J. Hanifan은 개인이 혼자서는 상호협력이 불가능하지만 이웃과 접촉하며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며 시작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며, 사회 각 구성원의 협력은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주며, 개인 역시 이웃과의 교류와 상호협력, 사회적 연대감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새로운 개념은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라졌다. 하지만 1950년대 캐나다 사회학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재발견되며 사용되었다. 이후 1960년대 Jane Jacobs가 도시 근린지역 분석에 사용했고, 1970년대에는 Glenn Loury가 노동시장연구에서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지역공동체 문화와 소득 분배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치 기구를 구성하는 능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며, "공동체 사회 조직 내에 있는 개인들의 발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결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계적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Wilson & Kelling(1982)이 발표한 글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후로 사회학 분야 및 공공권에서 화두가 되었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는 도시 환경을 감시하고 잘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반달리즘의 심화나 강력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는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거듭하여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범죄의 감소와 예방,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 연대의식과 신뢰가 바탕이 된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홍영란, 2007). 한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는 Bourdieu(1986)에 의해 이루어졌다.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한다(Bourdieu, 1986: 248). 종합컨대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신뢰, 규범, 연결망 등으로 뭉쳐진 영속적이고 유용한 관계에 의해 뭉쳐진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인 '인맥'의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한 사람이 소유한 사회적 자본의 총량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의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총량이 된다는 것이다(Bourdieu, 1995: 12).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이 개념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도입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을 경제자본 및 문화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의 형태로 본 것이다. Bourdieu가 개념화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비관론적 본성(Pessimistic nature)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재생산 외에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Aguilar and Sen, 2009; 최희숙, 2008: 23). Bourdieu에게 있어서 사회적 자본은 어떤 집단에 속한 개인의 자기 이해라는 이윤추구와 이윤증식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의미에서 이해추구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Bourdieu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의 계급적· 세대적 이전을 위한 은폐되고 위장된 비밀통로들일 뿐이며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궁극적인 행위가 이윤추구라는 전제로 수렴된다고 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의 속성과 이타적 행위 등의 순수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김상준, 2004: 63-95).

Portes & Sensenbrenner(1993)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민자들이 소속 공동

체를 떠나고자 할 때의 반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회원들에게 압력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개명을 하는 회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Gold(1995)는 Los Angeles에 있는 유태계 공동체 회원의 경우 경제사회의 주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은 공동체 구조에 결속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윤두섭·오승은, 2005: 392).

Fernandez-Kelley(1996)는 볼티모어 게토(Ghetto)에 거주하는 소녀들의 생활을 통해 일상적인 폭력, 실업, 약물 중독 등 환경에 처한 소녀들의 정체성과 신분의 어려움을 연구하였다(윤두섭·오승은, 2005: 392).

Healey(1998: 1531-46)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기초하여 규범적인 접근을 하며 '제도적 자본'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다. Healey는 협력적 계획과정을 통한 합의도출의 능력을 제도적 자본의 형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정 지역 내 존재하는 관계망의 질을 그 지역에 있어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자본으로 보았으며 협력과 합의를 끌어내는 원천을 사회구조와 신뢰로 정의하였다. 제도적 자본은 세 가지 측면으로 지적 자본으로서 지식자원(knowledge resources: K), 사회적 자본으로서 관계자원(relational resources: R), 정치적 자원으로서 동원능력(mobilization capacity: M)을 의미한다. 지식자원은 당면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 지식과 문제 자체를 변형할 수 있는 변혁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지식과 인적 자원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나눈다. 동원능력은 지식 자원과 관계자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전자가 풍부할수록 동원능력은 확대가 가능하다. Healey는 세 가지 자원들이 서로 순환과 역동의 과정을 거쳐야 제도적 자본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양한 가치로 경쟁과 충돌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분절화 경향을 현대사회로 묘사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협력적 접근(collaborative approach)이야말로 상호이해와 합의의 요건으로 보았다.

Carcach & Huntley(2002)는 범죄와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높은 참여 수준을 가진 지방들은 범죄율이 더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사회적 상호 작용과 사회적 연계가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수준의 공동 노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홍영란 외, 2008: 50).

2.2.4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

사회적 자본은 정보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역할을 하며,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회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eragildin & Grootaert, 2000).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의 개발 뿐 만 아니라, 기업, 사회조직, 지역, 국가 등의 실질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홍영란 외, 2006).

Coleman(1988; 1990)은 고등학교 2학년생 중 졸업자와 중퇴자를 대상으로 가족 안에서와 가족 밖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효과를 진행한 이후 교육학적 관점의 연구는 활발하다. 이는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활발한 이유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자기 효능감을 높게 만들어 장차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부모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신뢰나 협동, 학교 교육에서 학습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Coleman은 가족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족 내 부모의 상주시간과 아이에 대한 보살핌과 주의에 대한 강도와 질을 언급한다. 사회적 자본과 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Coleman(1988: 98)은 책임과 기대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신뢰의 수준, 정보 채널, 자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공공재를 촉진하는 규범 및 강제 등을 사회적 자본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

홍영란 외(2009)는 사회적 자본의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였다. 가정교육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Coleman &

Hoffer(1987)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 성취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한다. Coleman은 부모의 자녀 학교 활동에 대한 관여, 자녀의 친구 부모와의 네트워크, 학교에 관한 부모와 자녀의 토론 등과 같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통제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Anderberg & Balestrino, 2003)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밖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교육, 지역, 사회, 종교, 조직 등과 같은 외부체제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홍영란 외, 2009: 288). 다음으로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를 검증하는 경우도 있었고 미래의 사회적 주요 구성원으로 등장할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장소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으로 학교교우와의 친밀성의 형성, 교사와의 관계 등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형성매체의 하나인 평생교육은 취미나 여가와 같은 영역과 함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생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교육영역이기에 사회적 자본의 교육학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홍영란 외, 2009: 289).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국가정책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관리·활용의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사회적 자본 분야의 지식 확충과 개발, 민간 에이전트 육성을 위해 정부의 예산 사업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정기오, 2006; 홍영란 외 2006: 290).

2.2.5 사회적 자본의 행정학적 함의

행정은 조직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포괄적인 성격을 띠며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 행동이란 주어진 공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회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 목표와 관련된 적정 수단을 정확히 선택하는 계산된 행동을 지칭한다(이종수, 2010: 25).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행정학적 관점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arayan & Pritchett(1997)은 아프리카지역사회에 관한 연구에서 구성원사이의 사회적 자본이외에 조직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도 지역사회의 소득에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축적이 클수록 지역의 소득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Newton(1997)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와 호혜성과 관련되어 있는 태도와 가치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며, 규범과 가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및 정치적 안정과 협력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자본에서 신뢰, 규범, 가치는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나 감각을 지니고 있어 개인을 변화시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Massey & Espinosa(1997)는 국가 간 이주 과정에서 자원의 다른 형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국제 이주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네트워크의 존재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강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일반적 사회적 자본과 개별적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주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정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행정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정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자본은 행정학적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역량의 강화로 인한 민주주의 활성화의 실현이다. 또한 언론을 활용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둘째,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자본은 행적학적 측면에서 신뢰에 기반하여 거래비용 감소로 경제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집단효능감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자본은 자율성 제고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상호부조복지의 기

반이 된다. 지역 사회 안에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복지의 실천적 행동으로 상호부조복지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자치회관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교육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자본은 행정학적 측면에서 자기 효능감, 사회통합, 교육성취 등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연구의 주요 학계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사회적 자본 연구의 주요 학계 관점

	정치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교육학적 관점
발달 배경	자발적 결사체의 중요성 인식 사회적 자본이 정치문화 발달에 기여	신경제학자들의 집단효능감 사회적 여건에 따른 경제적 결과의 상이	사회적 연대에 대한 관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연구 개인과 이웃의 상호접촉의 결과	1990년대 이후 학생들의 교육성취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결과
인식	정치제도와 정치문화를 발달시키는 하나의 사회적 척도	공동체 의식으로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높임.	지속적 네트워크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신뢰수준, 정보채널, 공공재촉진의 규범 및 강제
학자	Alexis de Tocqueville, Putnam,Freitag, Newton	Fukuyama, Ostrom, Woolock & Kwon	Bourdieu, Healey, Portes, Gold	Coleman, Anderberg & Balestrino
접근 방법	공공재, 자발적 결사체, 시민참여, 지역수준 거시적 접근.	집단적 접근 개인적 접근 미시적 접근	신뢰, 상보성의 규범 및 네트워크를 강조한 접근 거시적 접근	개인에서 집단적 접근으로 확대 미시적 접근
구성 요소 · 측정	신뢰, 호혜성, 규범, 네트워크, 사회적 참여, 투표율, 신뢰도, 신문구독률, 자발적	신뢰, 네트워크 상호작용, 정보제공 및 안내, 반응표출, 긍정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제도적 자원 인맥,신뢰, 협력	연결망,믿음,의무감,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대, 호혜성 가족 내 부모의 상주시간, 대화,

지표	결사체, 공공기관 도덕적 태도, 생활 만족도, 협회소속 회원			학교참여, 부모기대, 보살핌과 주의에 대한 강도의 질
연구의 한계	농경사회를 기초로 한 중상주의 경제체제에서 발견되었다는 한계	이질집단에 대한 배타적 경향의 한계	인간의 순수성 배제경향, 이질집단에 대한 배타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개인적 차원의 이윤추구가 중요한 동기로 작동
행정학적 함의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역량의 강화로 인한 민주주의 활성화 실현 언론을 활용한 민주주의 실현	신뢰에 기반한 거래비용 감소로 경제 효율성 제고(긍정적) 집단효능감	자율성 제고 상호부조복지 사회통합	자기효능감 사회통합 교육성취

2.2.6 국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2.2.6.1 국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연구동향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국가차원의 거시적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지방행정분야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시도지방정부,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각각의 지방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갈 원리와 지표로 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지역은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히 대전 광역시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

들어 운영 중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관계망 형성, 시민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의 허브기능을 목적으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Maloney 등, 2000: 802). 사회적 자본은 도시형 이웃 만들기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식과 지역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키울 수 있고 상호신뢰 기반이 구축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균열을 방지하고 범죄를 줄이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정광호, 2010: 5).

2.2.6.2 사회적 자본의 분석단위와 수준

정책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개념화와 측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대상지역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적 자본의 결과는 사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곽현근, 2007).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때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과 환경을 고려하여 측정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분석단위 수준에서 달라진다. Lin(2001)은 사회적 자본의 분석초점과 단위수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사회적 자본 연구영역과 주체를 조망하기 위하여 미시/중범위/거시적인 분석단위로 구분하였다. Lin은 사회적 자본의 미시/거시적인 분석에 대하여 “사회적 자본은 어떤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배태된 자원에 접근하거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산(Lin, 2001)이며, 미시적 분석수준에서는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중요하다”(고경훈 외, 2012: 11)고 설명한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함에 있어서 중범위 수준에서의 분석단위는 공동체 수준으로, 거주지를 중

심으로 이웃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조권중, 2010: 27). 거시적 접근 방식은 한 사회나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민주주의나 경제발전과 같은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는데 구성원을 어느 정도로 참여시킬 수 있느냐와 같은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고경훈 외, 2012: 12). Paxton(1999: 88-127)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개인(사적인)수준, 집단(group)수준 및 지역사회(community)수준 등 세 개의 수준으로 분석단위를 구별하였다. Paxton은 지역사회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집단들 간의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고, 그 수준은 국가로까지 확대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사회신뢰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Fukuyama(1995)의 국가 간 비교연구는 지역사회 수준으로, Putnam(1993)이 이탈리아의 지역 대상 분석단위 또한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자본 연구에 해당한다(김명숙, 2004: 26). Lowndes & Pratchett(2008)는 사회적 자본의 공공정책에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별 접근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창출, 투자, 배분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분석단위 수준의 기제를 미시-거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수준, 지역공동체수준, 도시/국가수준으로 분석단위의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조권중, 2010: 27). 다음 <표 4>는 국내의 연구기관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연구주제, 분석단위와 수준 그리고 측정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사회적 자본의 분석 단위와 수준

연구기관	저자	발표년도	연구 주제	분석단위와 수준	측정지표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태종 외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전국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	신뢰, 규범 사회적 참여, 사회시스템과 네트워크, 기타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정기환 외	2006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발전	대전광역시 및 충남 논산시, 부여군, 논산군 등 4개 마을의	규범, 신뢰, 집단 내 정보 공유 정도

				사례조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이영현 외	2006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전국 20세~59세의 성인4.068명 대상 개별 방문면접	신뢰, 네트워크, 참여
한국 교육개발원	홍영란 외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전국 초등학교 학생학부모14,720명 대상 우편조사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류석춘 외	2008	한국의 사회적 자본 -역사와 현실	전국의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어촌계, 시민단체, 교회, 아파트, 인력시장의 집단별 표본추출로 면접조사·우편 설문조사	사회적 연결망, 신뢰, 호혜성의 규범
국토연구원	김선희 외	2008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1,500명 설문조사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최항섭 외	2008	IT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 방안 연구	온라인 영역과 오프라인 영역으로 구분설문조사	공동체의식, 규범, 신뢰, 의사소통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외	2008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사회적 신뢰, 시민참여, 네트워크, 호혜성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 정갑영	2009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72개국을 대상으로 실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나타내는 기존의 지수들을 통해 측정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외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시도 거주 20~65세 성인 1,500명 대상으로 측정 실시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신뢰, 호혜성 및 관용,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사회통합 국민의식조사	노대명 외	2010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민 의식	전국 20세 이상 성인 2,012명 대상 전화 조사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귀속감과 기회균등, 나눔과 사회참여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외	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연구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 자치구, 농촌형 지방자치단체로서 군, 복합형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농복합도시	시민참여, 규범,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출처: 조권중, 2010: 연구자 재작성

2.3 자치회관

2.3.1. 자치회관의 도입 배경

정부는 1999년부터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확산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자치의식의 제고라는 맥락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김종성·신원득, 2004: 195).

자치회관은 설치 이후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5.28.)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마지막으로 주거단위의 근린자치를 활성화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통해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표현이다. 다음 <표 5>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중 주민자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표 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5.28.시행)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바뀌며 겪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공무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70%가 동의하여 2008년 시민 공모를 거쳐 '자치'기능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간'의 개념을 함께 의미하는 자치회관을 최종 선정하여 '자치회관'이라고 명명하였다.

2.3.2 자치회관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자치회관의 설치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각 동에 설치되었다. 자치회관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자치회관은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와 정서를 위한 복합개념의 공간으로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의 활용, 편의시설 제공 등 생활문화의 거점공간으로의 활용성과 어려운 이웃돕기, 이웃 간의 대화의 통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논의 장을 위한 나눔의 장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자치회관의 다양한 기능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한다(서진호, 2008: 138-44). 첫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치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 공동체 참여 형성을 위하여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의 정보교류의 기회와 나눔의 통로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셋째,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성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논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커뮤니티센터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성의 실현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복리증진을 도모로 공익을 우선하여 구성원 각각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참여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자 구심체 역할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농촌과 다르게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 가는 도시의 자치회관의 역할은 인간소외로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공공의 장소로서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2.3.3. 자치회관의 운영 및 기능

자치회관은 운영과 설립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치회관을 통한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치회관과 관련한 업무 중 운영은 일반 운영분야와 프로그램 운영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서울시, 2013: 136−140). 일반 운영분야는 다섯 분야로 구분되며 첫째,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 구성·운영에 관한 분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와 효율적인 위원의 선정과 분과위원회의 역량 강화,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동 실적에 대한 관리이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의식의 역량 제고 및 주민자치위원회 자긍심 고취 방안을 마련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을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 활동을 고취시키고, 구청과 주민자치

위원회 간에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별 권역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 자치활동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위원회 자치활동을 추진하고 일반 주민·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관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우수 사례의 효율적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활동으로 홈페이지 구축으로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대외홍보를 통한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각종 활동사항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각종 매체활용을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홍보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분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부분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및 지역진흥사업·노인·저소득층·장애우 대상 프로그램, 미취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공휴일·야간 및 가족단위 대상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 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1자치회관 1특화프로그램은 지역여건 및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민간단체·시설 등 연계·위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는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적 저조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또 자치회관의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사항 공개 및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넷째, 프로그램 관련의 주민자치활동으로 지역 축제 및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와 관련한 활동과 수강생 등의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평가한다. 또한 센터시설의 보수와 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운영하고, 각 지자체는 조례에 있는 규정에 의거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치회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당해 자치회관은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표 6> 자치회관 운영분야별 내용

운 영 분 야	내 용
일반 운영분야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구성과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실화
	주민참여 자치활동 강화
	자치회관 운영지원
	홈페이지관리 및 주민홍보 활동
프로그램 운영분야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프로그램 관련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출처: 서진호, 2008: 139-140; 연구자 재작성

자치회관의 운영은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자원봉사자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위원회 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및 관계 공무원 등 운영관계자에 대한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샵 선진사례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치회관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공동체의 참여와 봉사, 지역에 대한 애향심 등이 요구된다. 이는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3의(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며,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간에 유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 간 유대의 형성은 상호간 두터운 신뢰를 만들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

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7>은 자치회관의 기능별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표 7> 자치회관의 기능별 내용

기 능	내 용	사례
주민자치기능	마을환경가꾸기,지역문제 토론, 자율방범활동 등	지역공동체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안전, 마을가꾸기, 지역문화 행사, 마을기업
문화여가기능	생활체육,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등	생활체육(배구·탁구교실), 예능취미활동(전시·공연·동아리 활동)
주민교육기능	주민대학, 청소년교실, 교양강좌, 동네문화연구회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청소년 교육, 일반교양, 취업반
주민편익기능	알뜰 매장, 주민회의장, 생활 정보 제공 등	회의장 공개, 도서대여, 인터넷 방, 놀이방, 청소년 공부방, 자원재활용, 농산물직거래
지역복지기능	청소년공부방, 마을문고, 건강증진 등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지원, 다문화가정지원
지역사회진흥기능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집 앞 청소 등	사랑의 100일간 릴레이 직능단체 바자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관심사항,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자치운영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능, 지역복지기능, 사회진흥기능, 문화여가·주민교육기능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치회관 업무는 기능별로 주민자치기능, 지역복지기능, 사회진흥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여가기능, 주민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강좌 프로그램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기능별로 2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며, 권역 내 중복을 지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현안 문제토의·동네환경개선·자율방제 등의 주민자치 기능이다. 둘째, 지역문화행사·취미교실·체육활동·전시회 등의 문화여가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교양강좌·청소년교실·주민대학·동네문화연구회 등 주민편익기능을 담당한다. 넷째, 생활정보제공·알뜰매장·주민회의장 등 주민편익기능을 담당하고 다섯째, 건강증진·청소년공부방·마을문고 등 지역복지기능을 담당한다. 여섯째, 집 앞 청소·불우이웃돕기·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을 담당한다. 자치회관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회관의 기능은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유익하게 가꾸어 가기 위한 다양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치회관의 기능은 상호 복합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종합컨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과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의 자치활동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활동은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김순은, 2012: 12)

2.3.4. 자치회관의 구성

2.3.4.1 주민자치위원회

1. 자치회관의 구성

자치회관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표면적인 운영 책임자는 읍면·동장(5급)이고,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지원하고 있다. 해당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는 자치회관의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한다.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역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과 개인 간 이해관계를 배제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자치회관 운영에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당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견수렴, 자문역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치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당해 동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도덕성에 결함이 없으며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임기가 1년이나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행정구역 조정 등의 사유로 구성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위원들에 한하여 임기 등 신분을 보장한다. 주민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로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촉진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의 구심체 역할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2의 사회화'에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 여가와 교육이 필요한 중·고령층에게는 문화의 향유와 재교육의 기회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로 지역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각종 지역 활동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분과별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회관 운영과 정기적인 논의를 개최하여 진행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와 상시적인 논의를 통해 회의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안에 있는 현안에 대해 공동체가 되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문제와 관련한 역할로 책임성이 부여되어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서진호, 2008: 136)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 경제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재정적인 관리는 동장과 협의하여 예산관리를 집행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며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인적·물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 자치회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각 자치구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다.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장소,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시하여 당해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2.3.4.2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한 후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확산 전에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안전 관리 및 지역복지 공동체 등이 구축되어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안전행정부, 2013).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주민자치회 모델안을 마련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기반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하여 전국 31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4년 하반기까지 시범실시가 현재(2013.10월) 추진 중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 된 2015년 이후에는 전국에 확산할 계획에 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모집해 20~30명 규모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며 둘째,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셋째,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 노후지역개선 및 공공시설 설치 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추진으로 주민들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자치회 유형을 7개로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모형은 기본모형인 안전마을형과 지역복지형을 포함하여 각각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 7개 유형이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유형을 표로 설명한 것이다(안전행정부, 2013).

<표 8>주민자치회 유형

유 형	개 념
안전마을형	지역 내 안전 유해 요소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
지역복지형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배분할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최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
마을기업형	주민자치회 중심의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문제에 대안, 문제해결 능력 및 자생적 역량 강화
도심창조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동네 재생사업을 통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추진
지역자원형	지역 명소, 특산물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제고
평생교육형	지역 주민의 수요,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
다문화어울림형	다문화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된 형태이다.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은 ①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②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③동별 자율적인 운영, ④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이다. 서울시에서는 은평구 역촌동과 성동구 마장동이 선정되었다. 특히 성동구 마장동은 주민자치회에서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협의, 위탁, 자치업무는 물론 안전마을, 지역복지, 마을기업 시범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며 마을 자치를 주도하게 된다(아시아 경제신문, 2013). 전국3,40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한 주민자치회 신청 지역 중 선정결과 대부분이 안전마을형(27)과 지역복지형(26)이었으며, 최종 선정지역은 다음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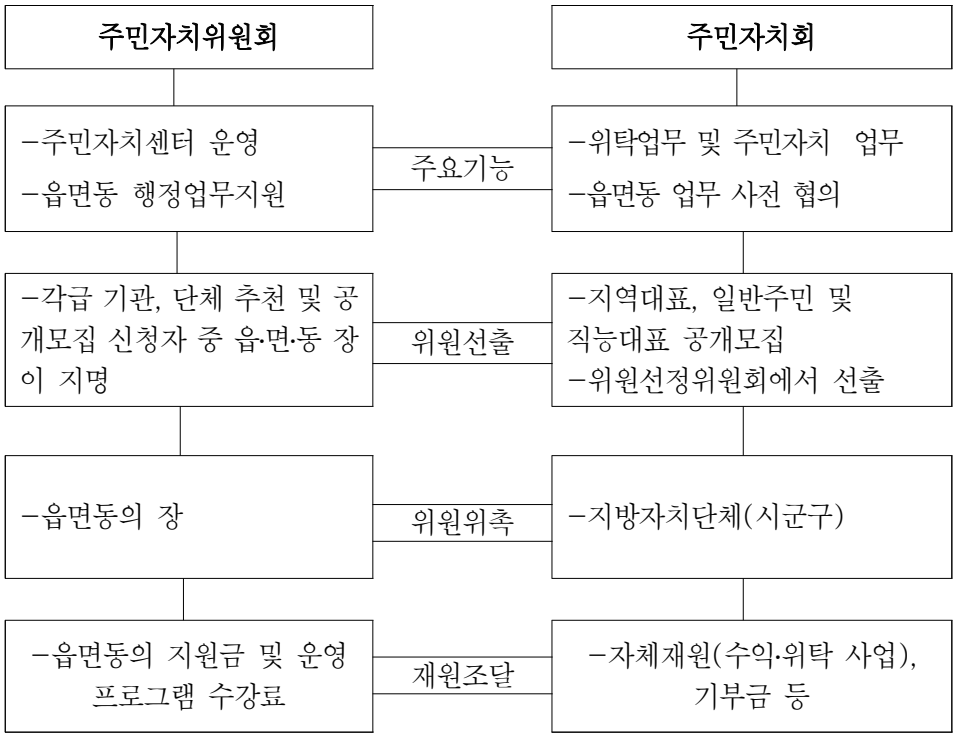
<표 9> 주민자치회 시범 최종 선정지역

구분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1	서울 (2)	성동구 마장동	17	강원 (2)	고성군 간성읍
2		은평구 역촌동	18		인제군 인제읍
3	부산 (2)	연제구 연산1동	19	충북(1)	진천군 진천읍
4		동래구 안락2동	20	충남 (4)	천안시 원성1동
5	대구(1)	수성구 고산2동	21		논산시 벌곡면
6	인천(1)	연수구 연수2동	22		아산시 탕정면
7	광주 (3)	광산구 운남동	23		예산군 대흥면
8		북구 임동	24	전북 (2)	완주군 고산면
9		남구 봉선1동	25		군산시 옥산면
10	대전(1)	동구 가양2동	26	전남 (2)	순천시 중앙동
11	울산(1)	북구 농소3동	27		목포시 신흥동
12	경기 (5)	수원시 행궁동	28	경북(1)	안동시 강남동
13		수원시 송죽동	29	경남 (2)	창원시 용지동
14		오산시 세마동	30		거창군 북산면
15		부천시 송내1동	31	세종(1)	부강면
16		김포시 양촌읍			

출처: 안전행정부, 2013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발전된 모습들이 이 연구에서 담고자하는 조직성과에 미치는 시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자치성의 실현으로 자치회관 스스로 재정을 담당하는 자생적 역량의 강화이다. 둘째, 프로그램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셋째, 공익의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주민자치회의 성공의 모델로서 집단효능감의 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자치회의 실시는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과 함께 자치회관이라는 조직의 성과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차이 및 성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2>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 및 성공 모형



출처: 안전행정부, 2013

자치회관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소통하고, 자발적 참여와 신뢰가 싹트는 공공공간으로서 자치회관의 자치성,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 등 조직성과를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야 말로 지역주민의 참여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4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2.4.1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개념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중시하게 되는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용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매년 평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다(Heinrich, 2005).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이 신뢰의 회복에 일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운영은 과정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Goss, 2001; 조희진, 2012: 3). 공공부문의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직성과의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성과의 경우를 보면 개방체계 조직이론(Open System Theory)에 바탕을 두고 투입(input)·전환(process)·산출(output)·결과(outcome)로 측정되었다(Stufflebeam & Shinkfield, 2007; McLaughlin & Jordan, 2004). 이러한 유형분류는 정책평가에서 프로그램 논리모형 개발과 성과지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 등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최천근, 2011: 353)**. 이것은 성과의 속성이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Rogers, 1990; 김영기, 1991). 특히 다양한 가치와 전달체계를 가진 공공조직에 있어서의 조직성과의 개념은 쉽게 정의 내리기가 더욱 어렵다(왕태규, 2007: 65-66).

조직성과는 관리부문의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종속변수이다.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는 다양한 수준과 측면을 가진 개념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성과 판단의 기준(criteria)은 없으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조직의 성과의 향상 유무를 평가할 수 없다(Brewer & Seldon, 2000; Druckman, Singer, & Van Cott, 1997: 10). 조직성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질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양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지표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분분하다. 최근 공익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것이 근본이념인 행정 분야에서 가치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성과평가 기준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Boyne, 2003; Behn, 2003), 성과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성과를 측정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필요함을 뜻한다(남승하, 2008: 2-3).

성과평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구분에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 내/외부적 기준과 행정가치에 근거한 조직성과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Boyne, 2003; Brewer & Seldon, 2000; Epstein, 1992; Wolf, 1997;1993; Jobson & Schneck, 1982; 남승하, 2008: 172). 비록 조직의 성과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적인 전제는 관리역량(management capacity)에 따라 조직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Monyhan & Pandy, 2005; Brewer & Seldon, 2000).

Rogers(1990)는 지방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지방정부의 활동을 통해 달성한 정도로 개념화하였고, 김형식(1999)은 한 기관의 전체 또는 선별된 프로그램의 효율, 효과, 적절성을 철저하고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개념정의를 하였다. 라휘문·한표환(1999)은 정부의 의도된 활동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나 가치실현에 미친 결과나 영향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 조직성과의 개념을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익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집단적 성과'라고 정의한다.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평가와 관련하여 한상우(2009: 2)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치회관의 기능의 잘못된 인식이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자치회관 등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역점으로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평가사례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9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서

면평가(35%), 현장평가(40%), 우수사례 발표회(20%), 시·구 공동협력(5%)로 구성되었다(한상우, 2009: 10). 2013년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운영 평가방법은 이전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 <표 10>은 2013년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설치 현황이다.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은 전국 현재 2734 곳의 자치회관 중 15.47%에 해당한다.

<표 10>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설치현황

시도	자치회관 설치 현황			
	계	읍	면	동
서울	423			423

출처: 안전행정부, 2013

다음 <표 11>은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의 수로 총9,31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각 자치회관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직능민간단체(2,886명), 다음으로 자영업자(2,878명), 기타(1,530명), 전문직(782명), 회사원(568명), 통반장(509명), 농축어업(156명), 지방의원(1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직능민간단체(청소년선도 위원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적십자, 체육진흥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협의회 등)나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다른 직종에 비하여 시간적·사회적·경제적 제약을 덜 받는 특성 때문이라 파악된다.

<표 11>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의 수

구분	합계	지방의원	통반장	직능민간단체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	농·축·어업	기타
서울	9,310	1	509	2,886	568	782	2,878	156	1,530

(인구:명)

다음 <표 12>는 2013년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운영 평가지표의 내용이다. 2013년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운영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100%(우수사례는 현장 확인 병행)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자치회관 시설 활용, 자치회관 행·재정 지원, 시·구 협력사업 참여 5개 평가분야 15개 항목 41개를 평가한다.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우수사례 평가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2> 2013년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운영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
I.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 확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비율 -조례상 공모 명시여부 및 홍보방법의 다양성 -주민자치위원의 여성비율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 및 자율성 학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역 공개실적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규모 및 재정 자주율 (자치구 지원 제외한 순수 자주율)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서울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이수실적 -상근 실무자, 자원봉사자, 일반주민 대상 자체 교육실적 -주민자치위원 교육의무이수제 도입 여부
II.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사업)	자치회관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전체 프로그램 대비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비율 -프로그램 수료제 및 동아리 전환 실적 -자치회관 프로그램 주민참여 실적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사업) 활성화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주민 수요조사에 의거한 프로그램 도입 실적 -중복 프로그램 조정, 통폐합 실적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대표 프로그램(사업) 운영사례 2건	-사업의 독창성 및 지속 가능성, 지역 적합성 -타 자치회관에의 파급 가능성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 주도 여부 및 주민참여 실적 *신규·기존 사업 각 1건: 현장확인 대상 *기존사업: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으로 전년과 전전년 제출사업 제외.
III. 자치회관 시설 활용	자치회관 중심의 공간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타 시설-유사시설-자치회관 간의네트워크 구성 실적 *지역시설· 프로그램 현황 관리 및 홍보물 비치·안내 현황
	자치회관 시설의 독립성 확보	-별도시설 분리 또는 별도 출입관리 현황 -개방시간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자 등 인력배치 실적
	자치회관의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 실적 -상근 실무자 배치 실적
IV. 자치회관 행·재정 지원	자치회관 운영 개선	-자치회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조례 개정 등 운영 개선 실적 -자치회관 홈페이지 활용·업데이트 실적
	자치회관 인력 및 재정 지원	-구 · 동 자치회관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 여부 -자치구의 자치회관 지원예산 및 일반예산 대비 지원율
	기관장 관심도 등	-기관장의 자치회관 관련 활동사항 -우수사례 전파 실적(책자 발간 등)
V. 시·구 협력사업	공공 시설 유휴공간 개방실적 및	-개방 공간 수 및 시민이용 건수 -개방 공간 정보의 구체성: 인터넷 예약 시스템 -사용료 수입 -개방공간의 지역 제한 여부

참여	홍보실적	-공간 개방 홍보 실적 -공간 개방 관련 민원 발생 여부
	도농자매결연 실적	-기 자매결연지와의 교류 실적 -농촌체험휴양마을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실적
	기타	-각종 행사·회의 참여 실적 -자료 제출 실적 등

출처: 서울시

자치회관은 한 지역에 있는 주민의 소통과 나눔의 장소로 공간적 개념이다.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의 주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았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자치회관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애향심과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참여한 마을 주민이다. 자치회관의 사업은 주민자치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매년 자치회관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업적은 포상을 하며 우수사례를 공개한다. 각 자치회관의 성과평가는 자치회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되고 있다.

자치회관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에 따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은 자치회관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성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평가지표는 지역할당방식으로 추출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439명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성과

측정을 실시하였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출된 구성요소는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이다. 먼저 자치성은 자치회관의 기능 중 운영분야에 도출하였다. 그 이유는 자치회관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에 의하여 자치회관이 운영되기 때문으로 재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적 운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자치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시범실시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자치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듯 자치성은 자치회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참여성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참여율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식을 기초로 도출하였다. 각 자치회관은 매년 2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사용을 공고한다. 자치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수입이 많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자치회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리더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어서 자치회관은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 중 공익성이 우선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가치의 배분원칙에 의거한 공익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기에 조직성과의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효능감은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하는 자치회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치회관의 기능(주민자치, 문화여가, 주민교육, 주민편익, 지역복지, 지역사회진흥)을 토대로 하여 도출하였다.

부족하지만,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성과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객관적 성과지표로 정량적 평가 자료를 조사하였다. 정량적 평가의 자료는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23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객관적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치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은 자치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기초로 주민자치아카데미 참여 인원수를 변수로 설정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에 아카데미 참여 실적을 자치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 시범실시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추구하는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수실적을 구성요소로 자치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성에 대한 도출은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인원수를 토대로 하였는데 이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도 사업비의 재정을 충당하는 일부분으로 작용하고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자치회관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자생적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치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행정의 본질적 가치가 행해지는 곳이다. 최근 주민자치회는 유형을 7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치회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익성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효능감은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를 집단효능감을 측정하는 지표로 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집단효능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할 수 있다.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재원마련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에 일임하여 재정자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합컨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그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자치회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에 따라 자치회관 성과의 성패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이라 함은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표 13> 객관적 자료분석을 위한 자치회관 추진 실적 지표

구분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
운영 프로그램 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횟수	주민자치 아카데미 참여 인원 수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수	주민자치 또는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수

2.4.2 자치성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고 주민자치가 시작된 지 13년이 되어가고 있다(김찬동, 2013: 11). 흔히 주민자치를 '지역주민이 그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정부를 통해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자기통치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공동문제를 스스로 자치 기구를 결성하여 제도를 통해 자치를 행하는 방식이다. 즉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주민과 지방정부는 국가가 부여하고 용인하는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치를 한다. 자치에는 자치기구,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자치에는 자기입법과 자기통제를 주된 개념요소로서 구성된다. 일정한 지역공간이 필요하고 주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권이 있어야 자치라고 할 수 있으며, 자치를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를 만들고 그 규범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체 발달의 4단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계로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성 구비단계, 준주민자치적단계, 준단체자치적 단계로 구분한다. 이 중 준주민자치적 단계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단계이다(김찬동, 2013:

15-16). 준주민자치적 단계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자치성의 정의와 근접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치성은 마을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구의 자치회관을 살펴보면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금의 확보는 프로그램 활동 수강료와 구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 바자회 및 일일찻집, 소식지 광고료 등이 포함되어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기금확보를 위한 방법은 그 외에도 도농자매결연,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종로구는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새벽·야간·주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율성의 확보로 자치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시설(지역 내 학교, 연구소, 구민회관, 노인복지관, 예술 공간 등)에 프로그램과 관련 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치회관이 지역중심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였다. 성북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자체교육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의무 이수제 시행을 실시하였다(2013, 서울시: 5). 또한 자치회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개모집, 홍보방법, 주민자치위원의 여성비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상근 실무자의 배치로 자치회관의 문화강좌 접수, 운영지원 및 마을문고 관리 업무를 통해 자치회관의 운영을 돕고 있다. 각 자치회관은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화 사업의 실시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학교, 인문학 교실, 마을 환경 조성 및 개선, 장학사업, 도시락 나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요컨대 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자치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자치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는 자치성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자치성은 해당 동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의 특화를 토대로 중점적인 수행이 가능하며, 재정적인 자주율로 자치회관 사업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이라 할 것이다.

2.4.3 프로그램 참여성

‘참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가하여 관계하는 것이다. 참여는 만남, 소통을 의미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참여의 대상으로는 행정기구나 자치기구 그리고 공동체를 들 수 있다. 참여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와 주민간의 의사소통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김찬동, 201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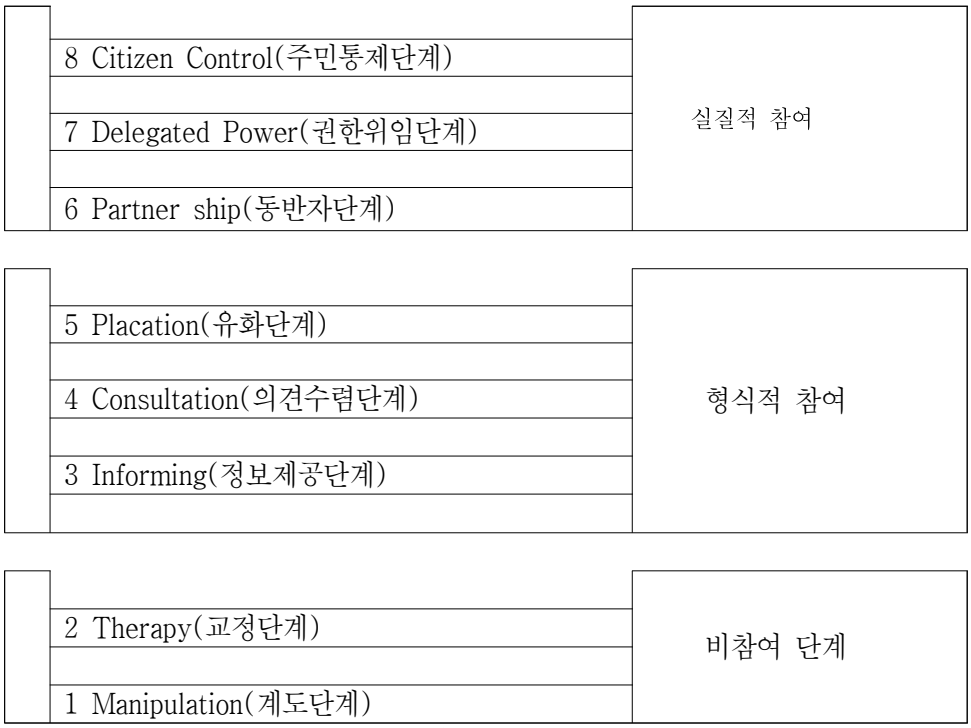
주민참여는 통상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지역주민 또는 시민의 행위’로 이해된다. 참여의 개념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은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라 불리는 영역에 있어 시민들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여부에도 크게 달려있다. 주민참여는 정부기관 및 그 구성원인 공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행하는 일반주민의 행위라 할 수 있다.

Zimmerman은 참여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수동적 참여(Passive form)와 능동적 참여(active form)으로 분류하고 있다. 능동적 참여는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민총회, 주민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화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는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되며 제도적 참여는 국가의 법령 또는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도거나 용인되는 참여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주민회의참석, 공청회 참석을 통한 행정에 대한 의견의 개진, 주민제안 등과 주민투표, 자원봉사활동이 속한다. 비제도적 참여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인정하지 않거나 용인하지 않는 참여행위로 고의적 법위반, 주민불복종운동 등이 해당한다.

Arnstein은 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주민참여를 8단계로 구분하였다. Arnstein(1969)은 참여의 실질적 의미 내지는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계도에서 시민통제에 이르기까지의 여덟 가지 형태의 참여를 정리하고 있다. 단계의

순서를 그림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김병준, 2010: 607-614).

<그림 3>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출처: Arnstein, 1969; 김병준, 2010: 611

앞에서 언급한 참여의 정의와 이론들은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지역주민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그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지역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많아져 지역발전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치회관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축제 등 일련의 공식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형식적인 참여

에서 실질적인 참여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자치회관은 건강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및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다. 그러나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같은 구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게 산정되어 있어서 수강료에 대한 통일성이 요구된다.

자치회관은 여러 프로그램의 운영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곳은 자치회관의 운영도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유아,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미술, 음악, 학습, 역사,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강동구 천호 2동 자치회관은 역사문화프로그램운영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근 대학교와 협력하여 매월 탐방을 통한 학습만족과 정서적 만족을 통한 지역 활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인근 명일 1동은 음악을 통한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축제 참여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북구 우이동과 수유 1동 자치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미술과 음악치료 활동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 월계 1동 자치회관은 유휴시설로 폐쇄되었던 경로당을 주민의 마을 살이 공간으로 꾸며 주민편의시설인 자치회관과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했던 주민들에게 지역의 문화 공간 및 공동체 활동 거점 센터로 개방하였다. 시설 개방 이후 이곳에서는 지역주민이 소모임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통한 생활 속 마을 축제, 안전마을,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자연체험을 실시하여 아동과 학부모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로구 구로 1동 자치회관은 자치회관에 오기 힘든 어르신을 위하여 경로당, 아파트 노인정에 직접 찾아가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자치회관은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제2의 고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다문화 가족 지원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참여성에 관한 이론은 자치

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이 인식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참여수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참여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프로그램 참여성의 정의를 '주민자치위원이 인식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2.4.4 공익성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유형이 다양하다. 가치는 도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구적, 수단적 또는 비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Ackoff, et al., 1981: 41; 이종수, 2010: 174). 비본질적 가치라 함은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이다. 본질적인 가치는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로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본질적 행정가치의 범주는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중 공익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로서 행정행위의 주요한 규범적 기준이다. 공익성의 개념은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개념이 등장한다. 일부학자들은 공익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까지 주장한다. Sorauf 등의 일부학자들은 공익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익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공익이 반하는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orauf, 1962: 188; 이종수, 2010: 175). 왜냐하면 공익성은 그것이 사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개념에 대한 통일된 견해나 공감대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김진웅, 2003). 공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Leys와 Perry(1959)는 공공성의 개념을 공익의 개념으로 대신하여 정의에 갈음하며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공익으로 의미를 고찰하였다. 공익(public interest)은 공공의 이익을 뜻하지만 공동선 또는 공공복리라는 말들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이효성, 1996; 주성희 외, 2012: 19). 한균태(2003)는

“특정한 사익에 지배되지 않고 일반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체로 공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편적 목표, 공동의 목적이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김진웅, 2003). 공익의 개념은 접근 시각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데 실체설과 과정설이 대표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실체설에서 공익의 개념은 정의, 형평, 복지, 인간존중, 공동사회의 기본적 가치 등 다양하다.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사익과는 구별되는 공익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루소(Rousseau), 헤겔(G. W. F. Hegel), 마르크스(K. Mark)로부터 플래스맨(R. E. Flathman), 헬드(V. Held), 벤디트(A. Bednitt), 리프먼(W. Lipman), 카시넬리(C. W. Cassinelli) , 오펜하임(F. Oppenheim) 등이 있다. 과정설에서는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된다고 인식한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로는 홉스(T. Hobbes), 흄(D. Hume), 벤담(Bentham), 베르그송(H. Bergson), 새뮤얼슨(P. Samuelson), 리틀(D. L. Little), 애로(K. Arrow), 벤틀리(A. Bentley), 헤링(P. Herring), 슈버트(G. Schubert), 소라우프, 트루먼(D. Truman)등을 들 수 있다. 공익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든 간에 공익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공익성의 여부를 결정하느냐에 있다(이종수, 2010 :175-176). 현대 사회에서 공익은 공공복리와 연계시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범주 내에서 결정된다.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가지는 이익인 공익은 공동이익 또는 각 개인이나 집단에 편익을 제공하는 타협이나 조정을 유지함으로써 갖는 공동이익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합의의 결과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집합모델로서의 공익성과, 공동체에서 모든 구성원의 상이성을 제거하고 추구하는 공동이익모델이라 할 것이다(Held, 1970; 조명희, 2013: 7-8).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각 자치회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성부분에 역점을 둔 사례들이 많다.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적으로 취학 아동 중 저학년 아동 위주의 프로그램인 미술, 음악,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마포구 성산1동은 맞벌이 부부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육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북구는 가베 교실, 키즈 요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랑구 면목본동은 자치회관 내 녹색가게를 운영하며 관내에서 기부받은 피아노로 음악 교실 등 출산·육아지원사업을 통해 다둥이 할인제도 등 시행으로 보육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영등포구 신길 7동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국악교실을 운영하여 2012년 서울시 우수사례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초기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여 난황을 겪기도 했지만, 자치회관의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 20명 내외로 참여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 수유1동과 우이동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수업과 음악수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봉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과 장애아동 통합문화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 양재 1동은 중증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철치료교실을 위하여 주민사랑방을 대관해 주고 있다. 각 자치회관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하여 한국어 교실, 요리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의 신사동과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외 여러 자치회관은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의 도모와 더불어 소외계층 배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구 중림동은 어르신을 위한 노인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로구 가리봉동은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운영되며 좋은 결과를 맺고 있으나, 어떤 자치회관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없는 곳도 있다. 또한 자치회관의 업무처리를 동주민센터 공무원이나 간사가 사무처리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여러 사례를 통해 자치회관이 추구하는 공익성은 공동구성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공공선 추구로 공익의 개념을 가지며 이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라 할 수 있다.

2.4.5 집단효능감

'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1977)가 처음 제시하였으며, 믿음의 대상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자아효능감(Self-Efficacy)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로 구분된다. 오늘날의 조직은 팀, 파트, 작업반 등의 작업집단 도입을 통해 개인 보다는 집단 수준에서 많은 과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집단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효능감은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효능감의 개념은 개인·집단·조직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까지 적용할 수 있다(Bandura, 1986; Gist, 1987; 이세규, 2010). 집단효능감은 집단의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 공동체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Gibson et al., 1996). 집단효능감은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역동성이나 성과를 예측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의 자기 효능감의 총합보다 더 우수한 변수이다(박원우·백수정, 2006). 집단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성취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집단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집단 구성원의 공유된 신념으로서 개인의 믿음에 따라 형성된다. Shea와 Guzzo는 집단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통된 신념으로 정의하며 Parker는 개인이 자신에 속한 집단의 역량이나 가능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집단의 힘은 구성원들의 집단효능감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며, 집단의 기능은 구성원의 상호 작용적이고 통합적인 역동의 산물이다. 상호간의 역동은 개인적 속성들의 합 이상의 통합적인 특성을 창출한다(조강혜·노형봉, 2013: 177). 자치회관은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자치성이나 프로그램 참여성 공

익성을 총합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결과는 집단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치회관의 여러 기능이 상호 보완 또는 절충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집단효능감은 집단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집단과업의 목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지속성에 대한 예측적인 설명력을 제공하여 집단의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조직의 성과달성에 대해 집단효능감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동섭, 2008). 집단효능감은 집단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의 총합보다 더 우수하다. 즉 집단효능감은 조직구성원들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구성원 각자가 가진 자기효능감의 합보다 더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Stone, 1994; Seijts, Latham and Whyte, 2000; Fetlz and C. D. Lirgg, 1998; 박은숙 외, 2012: 47). 따라서 집단효능감이 높은 자치회관은 집단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사업내용에도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마련을 운영하도록 한다고 한다.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조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집단효능감이 높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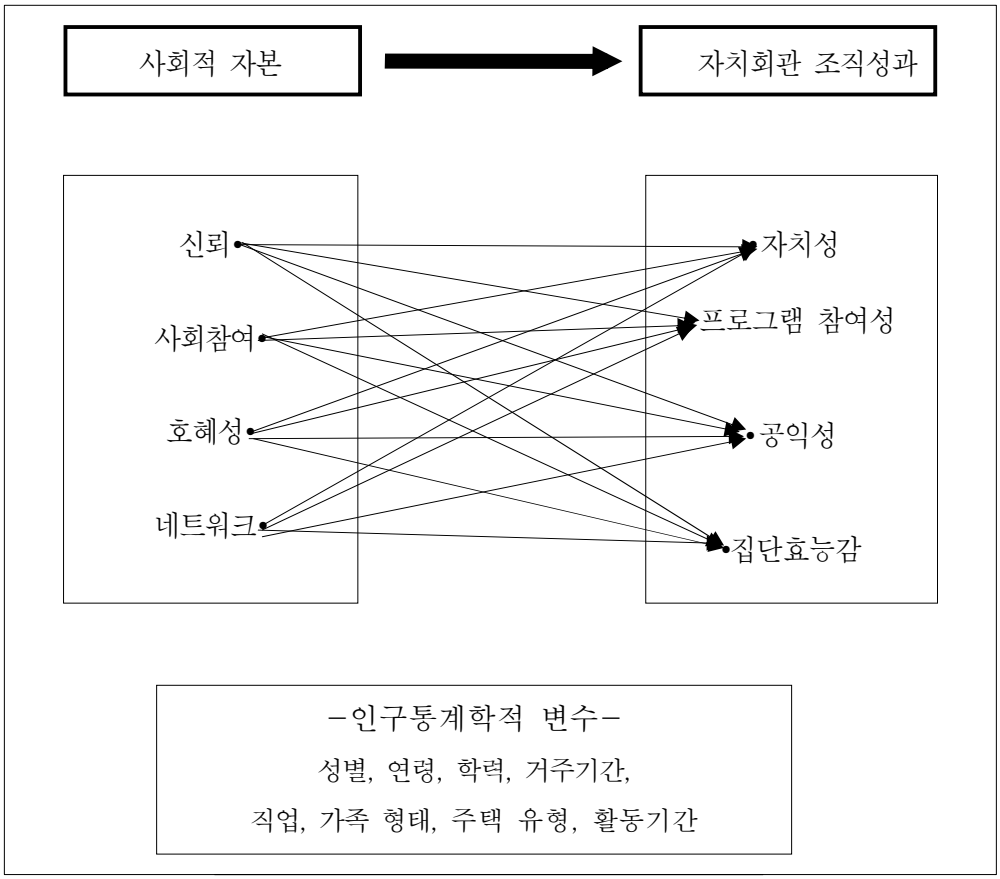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의 집단효능감을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이 총합으로 나타나는 자치회관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자치회관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성과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 모형



사회적 자본은 상호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자치회관이라는 조직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요인들 위주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며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측정지표인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자 한다. 자치회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는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식하는 자치의 정도,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참여성,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식하는 집단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가족형태, 주택유형,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았다. 이는 자치회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량적 측정을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주민자치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객관적 자료를 조사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연구 가설의 설정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에는 자치회관이 423곳이 있다. 그 중 지역할당방식에 의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23곳의 주민자치위원 439명에 대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주민자치위원이 인식하는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으로 종속변수를 설정하여 사회적 자본이라는 독립변수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량적 평가측정을 위하여 23곳의 자치회관의 객관적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설정은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자본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유익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공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Coleman, 1990; Fukuyama, 1995; 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을 통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information)과 자원(resources)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ix and Posner, 1998).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통합적 성과지표들이고, 주요독립변수는 다차원적으로 측정한 사회적 자본이다. 아울러 자치회관이라는 중범위 조직에서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활성화에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호신뢰가 부족하거나 부정적이면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상호신뢰가 쌓여 긍정적이면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신뢰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자치회관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치회관은 지역 구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치회관이 주관이 되어 움직이는 사업은 다양하다. 특히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사업은 자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상호신뢰가 두터우면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과 마찰이 생기지 않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무자들은 주민자치위원을 주축으로 자원봉사자들

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기에 가능하다. 지역주민과 자치회관과의 상호신뢰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포함시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끌어들이는 효과로 소외된 이웃이 없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지역주민간의 상호신뢰는 이웃과 상호 협력하는 작은 모임에서 좀 더 큰 조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뢰는 자치회관의 공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자치회관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오히려 지역 주민에 대한 강점으로 작용하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의 작은 요소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가 있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습 또는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 프로그램,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 마을 공동체에서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익성 프로그램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좋다 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의 집단효능감은 주민자치위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신뢰가 높은 자치회관은 당연히 집단효능감도 높을뿐더러 자치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자치회관에 대한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주민의 상호 신뢰는 결국 지역 활동가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신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뢰가 부족한 조직은 상호 네트워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성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발적인 결사체의 조직과 참여는 지역발전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서로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신뢰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중 신뢰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신뢰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신뢰는 자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신뢰는 프로그램 참여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신뢰는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신뢰는 집단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Putnam(1993)은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여 학습과 경험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초석이라고 주장하며, 공공지향적 시민의식은 2차적 성격이 각종 모임들-동호회, 학부모회, 각종 클럽, 봉사단체 등-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Putnam(2000)의 볼링클럽의 예가 바로 그렇다. 특히 Putnam(1993)이 강조하는 이차적 집단모임- 로타리 클럽, YMCA, 청년회의소, 독서회 그리고 각종 동호회 등-은 바로 사회적 자본의 초석이 된다(정광호, 2005). 또한 자발적 참여의 정신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등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율이 높고 지방행정에 대해 적절한 주민 참여와 감시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근래 지방자치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지역의 시민정신은 지역발전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협조하고 봉사함으로써 훈훈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능한 경영인, 유명한 예술가, 지식인, 기술자 등의 인재가 모이게 되어 지역발전이 촉진된다(최기조, 2010: 8).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최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역량을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토대가 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치회관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므로 사업추진의 운영이 활발하다. 지역의 어려운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는 자발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컨

대 중랑구 면목본동의 녹색가게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 자치회관은 지역의 특성인 서울 외곽의 신혼 부부가 다량 살고 있는 사회학적 특성을 살려 출산·육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 녹색가게의 주최는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관이었으나, 지역홍보를 통해 이용을 하게 된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참여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성동구 마장동은 잊혀져 가는 지역의 사진 자료 등을 지역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 찾기 등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에 가능하였다. 강동구 명일 1동의 명원 밝음이 봉사단은 보육 품앗이 공동체 "옹달샘 학교"를 졸업한 아동과 부모들이 나눔과 교육이 함께하는 나눔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시작하였다. 초기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되었던 모임은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참여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무료 문화공연을 통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는 나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단을 이끄는 단장 또한 처음 시작은 한사람의 주민으로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이었으나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나눔 공동체 실현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 회기동 자치회관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위하여 대학가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고민에서 인근 경희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민·학· 관 협력으로 대학과 지역주민간의 상생 및 마을공동체 조성의 구체적 실천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미 마을에는 테마가 없이 산발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었으나, 여기에 더하여 미술대학 학생들의 전문적인 실력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골목 미술관으로 조성한 것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을 소개하도록 하여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례가 되어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서울시, 2013: 3).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참여는 주민 스스로 자치회관을 꾸려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는 주민 주변을 둘러싼 크고 작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되어 자칫 소외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소외된 지역의 취약계층 및 소

외계층을 지역사회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개가 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주민자치위원의 집단효능감에도 영향을 주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최근 공개모집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로 순수 주민이 참여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라는 자율성이 확보된 조직으로 재정에 있어서 자치회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비자발적인 참여에서 자발적인 참여로의 이행은 무엇보다 지역의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다. 노원구 상계 3,4동 자치회관은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이 많은 특성으로 초기 성금모금으로 시작된 마을공동체가 최근 국수공장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나눔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취지만큼 이 자치회관은 지역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기부를 하고 싶은 단체나 기관은 자치회관의 국수공장에 위임을 하여 국수를 만들고 이를 전달하여 지역발전의 참여로 인한 공익에 앞장서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많으며, 국수공장의 운영 또한 주민자치위원 중 여성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송파구 마천 1동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과 뉴타운 재개발 예정지로 신·증축이 제한된 지역특성을 살려 마을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노후 된 불량주택을 수리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휴 전문 인력의 참여로 전기·전자 및 생활가구 등을 수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들은 다양한 직업군을 이루고 있는바 각계각층의 전문 인력의 참여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과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는 다양한 인맥을 구성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마을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집단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갈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마을에 대한 애정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킨다. 상기 여러 사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참여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치회관에서 사회적 자본의 사회참여가 갖는 의미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형성된 상호관계는 지역의 자치성과 프로그램 참여성 그리고 공익성 마지막으로 집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H2. 참여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참여는 자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참여는 프로그램 참여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참여는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참여는 집단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호혜성은 집합행동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Adler & Kwon, 2000)을 한다. Coleman은 상호부조의 규범으로 호혜성을 언급하며 개인이 이기심을 차단하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게 되는 자기억제적 행동은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로 호혜성을 언급하였다(Coleman, 1988; 박세경 외, 2008 ; 박선희, 2012: 29). Putnam(1993)은 이탈리아의 연구에서 일반화된 호혜적 규범에 대하여 시민참여관계망의 기대를 통해 확고해진다고 보았으며, 또한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바탕으로 호혜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조직구성원과 각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조직의 자산으로 결합 및 축적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Sahlins(1972)은 사회적 관계로서의 호혜성을 언급하며 상호 권리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로 받아들이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호혜성을 개념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웃 간에 살다보면 때로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웃 간 상호 도움으로 호혜성이 발휘되는 것이 기본이다. 전통사회에서 두레나 품앗이 등을 상호 호혜성에 의한 발현으로 보듯이,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며 어떤 기대나 요구를 바

라거나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자치회관은 공익성이 우선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치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치회관이 지역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대를 가질 수는 있다. 각 자치회관은 매년 다양한 축제 및 바자회 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형성에 힘쓰고 있음에 지역주민의 호응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봉구 창 1동 자치회관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를 매년 실시하여 인근 다른 자치구의 주민들도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였다. 이는 자치회관에서 전년도의 축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축제의 규모를 구성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전년도 축제를 검토하여 참여단체, 참여인원, 자원봉사자가 대폭 참여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 축제를 이끄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의 학교 또는 기관과의 연계로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받아 축제를 운영을 하였으며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원봉사와 기부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종로구 숭인 2동 자치회관은 주민 스스로 낙후된 동네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호혜성에서 비롯된 의지로 한 지역주민이 재능기부로 벽화마을을 조성하였다. 주민자치위원의 발의와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협조는 낙후된 마을을 문화거리로 변화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벽화를 보존하기 위한 재료비는 기존 나눔 카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소소한 기부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또한 숭인 2동은 지역 주민과 관내 업체가 소소한 기부(현금, 물품, 재능 등)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한 이웃돕기 네트워크를 실천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부에 동참한 업체에게는 명패를 부착하여 지역주민으로 자부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중랑구 면목본동의 녹색가게 운영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지역주민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중랑구는 자치회관간 호혜성의 발휘는 자치회관의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공동프로그램을 진행하

기도 한다. 자치회관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취미활동을 확대시켜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자치회관은 연 1회 이상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전시회 및 바자회를 실시한다. 앞 서 언급한 중랑구 면목 4동 자치회관은 2013년 자치회관의 2층 건물을 활용하여 조성한 북카페를 활용하여, 월 1회 자치회관에서 활동한 어린이 또는 성인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북카페의 운영은 오후5시까지로 인근 상업지역의 카페의 형편을 고려한 운영시간 의 고려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북카페 수익시설 설치를 통한 자주적 재원확보로 마을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지원,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호혜성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화양동 자치회관은 지역 내 다른 카페에서 원두를 제공받아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양동 자치회관은 자치회관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주민 어울림터를 조성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주민 어울림터 내에는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서가의 설치로 지역주민 상호간 호혜성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화양동 자치회관은 2013년 안전행정부 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마을 카페 운영과 마을 축제를 책임운영하며 지역 안에서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성동구 소재 자치회관은 취약시간 및 취약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새벽·야간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토요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각종 특기 적성과 학업 향상에 기여하였다(서울시, 2012: 77-84). 도봉구 방학1동 자치회관에서는 지역의 청소년 중 그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대학에 가고 싶은 청소년에게는 자치위원 중 전문가가 함께 지도를 해 주고 있다(서울시, 2013: 215). 자치회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은 수시로 회의와 만남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상기 여러 사례를 통해 사

회적 자본의 호혜성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와 상관관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사회적 자본의 호혜성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독립변수로 채택하고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호혜성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호혜성은 자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호혜성은 프로그램 참여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호혜성은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호혜성은 집단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Putnam은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공식적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의 증가요인으로 파악한다. 즉 네트워크는 호혜성과 규범을 만들어 공동체의 응집력을 통해 약한 유대(weak ties)의 유지와 집단적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로 설명하는 것이다(Putnam, 2000). 거듭하여 사회적 자본의 기본 논리는 사회적 자본의 존재와 유지를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를 해결할 수 있고, 개인들과 집단들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자치회관은 지역 안의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연령층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치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들 간 유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의 유대 관계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이루어져서 소모임 등을 결성하게 되고 이런 유대 관계는 동종의 주제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더 큰 모임을 이루고 결국에는 지역 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치회관에서는 타 시설과 유사시설 자치회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과 관이 손을 잡고 공공기관을 관내에 유입하거나 자치회관과 종교시설이 협력하거나 교

육과 복지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최근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도 인근 자치회관과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탄력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자치회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상호협력하여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한다. 자치회관 간 네트워크의 구축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확대로 이어져 거래비용을 줄이게 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네트워크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로 최근 사회적 경제에서도 상호 네트워크를 강조하듯 자치회관의 네트워크는 상부상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는 지역 내에서의 전문 인력을 흡수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봉구 방학 1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인문학, 음악, 미술 등을 전문으로 공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치회관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며 자원봉사자이자 지역의 일꾼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광진구 중곡 4동 자치회관은 25명의 자치위원 중 여성위원이 17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인근 아차산 주변의 주택 벽을 활용한 아름다운 벽화 조성으로 여성위원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자치센터 내 위치한 카페의 운영도 여성위원들이 상근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각각의 재능기부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자치회관은 시구 협력 사업에 참여하거나 도농 자매결연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도농 문화격차의 해소와 상호상생의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울러 각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 중 인문·사회·정치·경제 등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있다. 이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각 자치회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이라는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하여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네트워크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네트워크는 자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네트워크는 프로그램 참여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네트워크는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4. 네트워크는 집단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구성요소만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연구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수로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독립변수인 자치회관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종속변수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각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구성되었다. 먼저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으로 신뢰는 자치회관이라는 중범위 수준에 맞추어 측정이 필요하기에 자치회관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신뢰의 차원을 다루어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체계 이론에 기초하여 신뢰에 대

한 범위를 제한하여 측정지표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의 조작적 정의는 “사회체계이론에 기초한 사람들 간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사회참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공동체나 결사체 또는 조직에 소속하여 활동할 때“로 정의한다. 사람은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면 어느 집단에 소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확장된 개념으로 보자면 자아실현의 욕구로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부여하는 욕구로 사회참여를 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 관한 참여는 특히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셋째, 집합행동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주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호혜성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로 받아들이는 상호인식이 도덕적 의무감으로 될 때 성립되는 것으로(김기홍, 2005: 19) 사회적 자본의 개념 중 호혜성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대”라고 정의한다. 보통 타인을 도와주거나 배려하는 마음은 호혜성에서 비롯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타인에 대한 호혜성은 그를 도움으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네트워크는 사회구조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유지가 가능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의 조작적 정의는 “개인과 조직이 속한 사회연결망 안에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관계유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자치회관이라는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속변수로는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이 있다. 첫째로 자치회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식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치성의 조작적 정의는 “주민자치위원이 인식하는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주민자치위원 간 상호관계에 의한 자치회관이 운영이 재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적 운영 외 여러 부분에서 자치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치회관에서는 다양한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참여성은 자치회관의 여러 기능 중(문화, 주민교육, 지역복지) 자치회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참여율을 주민자치위원이 인지하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성의 조작적 정의는 “주민자치위원이 인식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로 정의한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은 문화와 교육, 복지기능 외에도 자치회관의 재정적인 자주율에 도움이 된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자치회관의 사업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치회관에 대한 자발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셋째, 자치회관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심체로서 특정한 사익에 지배되지 않은 곳이다. 자치회관은 공공복리와 연계시켜 모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공익성은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의 실현의 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넷째, 오늘날 집단수준에서는 많은 과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집단효능감이 특정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성취행동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효능감은 해당 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전술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정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4>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변수	측정지표	정 의
사회적 자본	신뢰	체계이론에 기초한 사람들 간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	공동체나 결사체 또는 조직에 소속하여 활동할 때
	호혜성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대
	네트워크	개인과 조직이 속한 사회연결망 안에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관계유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자치성	주민자치위원이 인식하는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
	프로그램 참여성	주민자치위원이 인식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공익성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의 실현의 장
	집단효능감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3.4 실증연구의 방법

3.4.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423개의 자치회관 중 한국자치학회에서 발췌한 권역별 구분을 토대로 하여 지역할당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15> 권역별 자치구 현황

1권역 (동북권)	중랑구,동대문구,성북구, 강북구,도봉구,노원구	
2 권 역 (서북권)	서대문구,종로구,용산구, 은평구,마포구,중구	
3 권 역 (동남권)	성동구,광진구,서초구, 강남구,송파구,강동구	
4 권 역 (서남권)	구로구,양천구,강서구,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423개의 표본 측정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동북권 소재 자치구 4구 6곳 자치회관, 서북권 소재 자치구 4구 6곳 자치회관, 동남권 소재 자치구 4구 6곳 자치회관, 마지막으로 서남권 소재 자치구 4구 6곳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중 자치회관 24곳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부 중 자치회관 담당자로부터 설문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자치회관을 제외한 23곳의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위원의 수도 일반적으로 25명이 기준이나 자치회관에 따라 인원과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자치회관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3년 7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90일 동안 해당 자치회관으로 우편 혹은 방문조사 및 이메일을 통해 회수된 448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게 응답된 9부를 제외한 439부의 설문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확정한 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 시간상·공간상·환경적 제약이 많아 설문지를 배부해서 회수하는데 까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표 16>은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에 대한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6>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구분	내용
표본의 범위	서울시 자치구 소재 자치회관 23곳
표본의 선정	서울시 자치구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 439명
표본추출방법	지역표본, 층화추출방법,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및 표본의 크기	2013년 7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설문지 배포	설문지를 배부하기 위하여 각 구청과 자치회관 담당자를 만나 설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각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직접 대면을 통해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방법을 안내한 후 배포 및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수 실행

3.4.2 측정도구

1. 독립변수

가.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연구의 주요 학계 관점에서 거론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척도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각각의 구성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 등 5개 20문항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사회적 자본 중 신뢰에 관한 측정으로 ①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신뢰한다. ②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를 신뢰한다. ③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신뢰한다. ④나는 외국이민자를 신뢰한다. ⑤나는 지역이 다른 사람도 신뢰한다 등 5개 문항으로 하였다.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설문 문항은 ①나는 지역사회단체(민간단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②나는 지역사회의 자선활동과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③나는 동창회에 참여하고 있다. ④나는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다. ⑤나는 이웃과의 친목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등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호혜성과 관련하여 설문 문항은 ①나는 도움을 청하는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준다. ②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다. ③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다. ④나는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 ⑤나는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로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측정문항은 ①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의 사회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②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의 종교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③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의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④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⑤우리 자치회관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웃 자치회관과 교류하고 있다 로 하여 측정하였다.

2. 종속변수

가. 조직성과

조직성과의 개념은 관리부문의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종속변수이나 성과라는 단어 자체의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행정 분야에서 공익의 창출과 배분이 근본이념으로 가치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이라는 조직에 대한 인식의 양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치회관을 이끄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을 5개 20문항으로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의 성패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설문은 앞 3장 자치회관의 기능(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주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복지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먼저 자치성의 설문문항은 ①우리 자치회관은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기획과 홍보를 하고 있다. ②우리 자치회관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 ③우리 자치회관은 상근 실무자가 있다. ④우리 자치회관은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⑤우리 자치회관은 자치회관 주관의 특색사업을 하고 있다 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성에 관한 설문은 주민자치위원이 인지하는 지역주민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①우리 자치회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다. ②우리 자치회관은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율이 활발하다. ③우리 자치회관은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율이 활발하다. ④우리 자치회관은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참여율이 활발하다. ⑤우리 자치회관은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율이 활발하다 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공익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①우리 자치회관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우리 자치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우리 자치회관은 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우리 자치회관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⑤우리 자치회관은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주민자치위원의 집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치회관의 기능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①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②우리 자치회관은 마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③우리 자치회관은 자율방범으로 지역사회안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④우리 자치회관은 공동체사업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⑤우리 자치회관은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를 측정하였다.

다.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가족형태, 주택유형,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측정을 위하여 <표 17>의 설문지 구성과 측정방법을 사회적 자본 측정 20문항, 자치회관 조직성과 측정 20문항, 통제변수 8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자치성을 측정하는 3번 질문인 상근 실무자의 유무에 관한 설문과 인구통계변수를 제외하고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점수를 정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은 설문지 구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

<표 17> 설문지 구성

구분	독립변수			
연구변수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
설문번호	I.1-5	I.6-10	I.11-15	I.16-20
문항수	5	5	5	5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측정문항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신뢰 •동료에 대한 신뢰 •동네사람에 대한 신뢰 •외국이민자에 대한 신뢰 •다른 지역사람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단체(민간단체 등)에 자발적 참여 •지역사회의 자선·구호 참여활동 •동창회 참여 •동호회 참여 •이웃 간 친목모임 참여 횟수	•도움을 청하는 이웃에 대한 호혜성 •도움을 주는 이웃에 대한 호혜성 •처음 본 사람에 대한 호혜성 •도움을 받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자원봉사단체가입활동	•지역사회단체와의 교류 •지역종교단체와의 교류 •지역유관기관과의 정기적 교류 •지역자원봉사단체와의 교류 •이웃 자치회관과의 교류
출처	Putnam(1993, 2000), 연구자 재구성	Putnam(1993, 2000), 연구자 재구성,	Putnam(1993, 2000). 홍영란(2007), 연구자 재구성	Putnam(1993, 2000), 연구자 재구성

구분	종속변수			
연구변수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측정지표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
설문번호	II.1-5	II.6-10	II.11-15	II.16-20
문항수	5	5	5	5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측정문항	•프로그램의 기획과 홍보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재정 •상근실무자의 유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시간 조정 •자치회관주관 특색사업 유무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율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율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참여율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율	•유아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믿음 •마을환경문제해결에 대한 믿음 •지역사회안전해결 대한 믿음 •지역경제회복에 대한 믿음 •지역건강문제해결에 대한 믿음
출처	2013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실적 보고서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구분	통제변수							
측정지표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번호	Ⅲ.1	Ⅲ.2	III.3	III.4	III.5	III.6	III.7	III.8
문항수	1	1	1	1	1	1		1
척도	명목척도							
측정문항	성별	직업	연령	학력	거주기간	가족형태	주택유형	주민자치위원활동기간
총문항수	독립변수(20) + 종속변수(20) + 통제변수(8)=48							

3.4.3 자료의 분석방법

평가는 분야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인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량적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다. 특히 정량적 평가는 기준이 명확하여 그 기준에 대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실증분석에 사용된 439부의 유효 표본을 사용하여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한 후 자료처리를 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식을 측정하는 정성적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439명에 대한 분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분석을 선택하고, 회전은 varimax를 택하였다. 설문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Cronbach α값을 구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변수인 사회적 자본,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분석과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하위변수인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의 하위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ANOVA:analysis of variance)의 F 검증을 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23개 자치회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아래와 같다.

여섯째,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4.1 조직성과의 객관적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과 더불어 자치회관 23곳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출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적인 조사로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의 수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자치성은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한 아카데미 이수 실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23곳 자치회관의 현재 활동 중인 주민자치위원 수를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참여한 이수 위원의 수로 산출하였다. 이는 자치회관의 자치성의 평가항목 중 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프로그램 참여성은 프로그램 참여율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을 중심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 6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를 도출하여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항목 중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중 평가내용 일부분을 본 연구의 측정지표에 맞는 객관적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공익성에 대한 측정지표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비율로 하였다. 공익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프로그램 수 중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를 나누어 산출하였다. 공익성을 도출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비율은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평가 항목 중 일부분이다.

넷째,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집단효능감에 대한 측정지표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의 수로 하였다.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은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평가 항목 중 일부분이다. 자치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 23곳을 대상으로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정량적 통계를 위하여 운영 프로그램의 수,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횟수, 주민자치 아카데미 참여 인원수, 주민자치 또는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수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객관적 자료의 양이 부족함이 한계로 남는다.

<표 18> 자치회관 객관적 자료 분석을 위한 산출식

자치회관 객관적 자료 분석을 위한 산출식		
자치성	아카데미 이수실적	아카데미 이수 위원수/현재 위원수*100
프로그램 참여성	프로그램 참여율	6개월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전체 프로그램 참여 운영 횟수
공익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비율	취약계층프로그램/전체프로그램수*100
집단 효능감	지역특화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수/전체프로그램*100

4.1.1 기술통계 분석

다음은 본 연구의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기술통계 분석이다. 객관적 평가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 그 기준에 대비해 평가가 가능하다. 자치회관의 기술통계분석을 위하여 <표 18>에서와 같이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산출식을 통해 <표 19>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 <표 19>는 연구대상 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 등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정리한 표이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에서 평균은 신뢰 16.19, 참여 17.63, 호혜성 18.35, 네트워크 32.80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적 자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보통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19> 객관적 자료 기술통계 분석

구분	분류	표본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자본	신뢰	23	16.19	1.02	13.66	18.05
	사회참여	23	17.63	1.42	14.21	19.66
	호혜	23	18.35	1.22	15.71	20
	네트워크	23	17.33	1.37	14.2	19.45
조직 성과	아카데미 이수실적 (자치성)	23	32.80	31.13	0	121.42
	프로그램참여율 (프로그램참여성)	23	9.53	9.43	.651	33.53
	취약계층 프로그램비율(공익성)	23	14.24	11.54	0	34.92
	지역특화프로그램 (집단효능감)	23	46.61	37.75	7.692	150

다음으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평균은 자치성 32.80, 프로그램 참여성 9.53, 공익성 14.24, 집단효능감 46.61로 나타났다. 이 중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4.1.2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부터 서로 상관된 관계의 강도를 알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객관적 자료 상관관계분석

		사회적 자본				자치회관 조직성과			
구분	분류	1	2	3	4	5	6	7	8
사회적 자본	신뢰	1.00							
	사회참여	0.59**	1.00						
	호혜성	0.59**	0.81***	1.00					
	네트워크	0.24	0.53**	0.57**	1.00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아카데미 이수실적 (자치성)	0.10	0.46*	0.39	0.24	1.00			
	프로그램 참여율 (프로그램 참여성)	−0.02	−0.14	−0.1788	−0.20	−0.07	1.00		
	취약계층 프로그램 비율 (공익성)	0.17	0.42*	0.28	0.19	0.16	0.00	1.00	
	지역특화 프로그램 (집단효능감)	−0.37	−0.18	−0.20	0.03	0.19	0.25	0.21	1.00

*p<.05,**<.01, ***p<.0.001,

<표 20>은 사회적 자본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

크와 계량적 조직성과 지표인 아카데미 이수실적(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율(프로그램 참여성), 취약계층 프로그램 비율(공익성), 지역특화프로그램(집단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상관관계 분석결과 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표본수가 23개로 작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작은 표본수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사회참여와 취약계층 프로그램에 관한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참여와 아카데미 이수 실적(자치성)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참여와 취약계층 프로그램 비율(공익성)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성과 지표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시사에도 불구하고, 사회참여라는 사회적 자본과 객관적 성과 지표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먼저 사회참여와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수실적(자치성)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능동적인 마인드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회관의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회관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마을 공동체 교육 및 마을 만들기 과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인문학 교육, 자원 봉사자 교육, 교양 대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지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보의 장 역할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회참여와 취약계층 프로그램(공익성) 간 관계를 살펴보면 자치회관은 공공공간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어 잘 알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대하여 밝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을수록 자치회관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 이유는 지역특색과 실정을 잘 알게 되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욕구와 정보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프로그램 참여율(공익성)이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공익성이 우선되는 자치회관의 특성은 적극적인 주민자치위원의 활약으로 모든 주민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서울시 우수사례 평가 결과 영등포구 신길 7동의 사례에서는 지적발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풍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들이 합주 및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 소외감을 없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자원봉사에 의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공익성이 우선되는 자치회관의 성격을 확연히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2011년 이후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다. 거듭하여 용산구 청파동 자치회관의 독거노인을 위한 마을 극장, 노원구 상계3.4동 자치회관의 행복 나눔터 국수공장, 강남구 세곡동 청소년 공부방 및 세곡 나눔 장학회 등은 사회참여에 의한 공익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은 늘 함께 했다. 다만,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지 못한 체 조직 구성원 혹은 집단 간에 신뢰를 쌓고 참여를 통한 잦은 만남으로 상호 호혜성을 발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 표본이지만, 자치회관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자치회관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설문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4.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N(명)	비율(%)
성별	남자	265	60.4
	여자	174	39.6
연령	20대	2	.5
	30대	13	3.0
	40대	92	21.0
	50대	228	51.9
	60대	92	21.0
	70대 이상	12	2.7
학력	초·중·고졸	218	46.7
	대졸	202	46.0
	대학원 이상	19	4.3
현거주기간	1년이상~5년이하	45	10.3
	6년이상~10년이하	94	21.4
	11년이상~20년이하	154	35.1
	21년 이상 ~30년 이하	85	19.4
	31년 이상	61	13.9
직업	직장인	67	15.3
	자영업자	188	42.8
	주부	106	24.1
	공무원	6	1.4
	기타	72	16.4
가족형태	1인가족	14	32.
	부부만	68	15.5
	부부와 자녀(2대)	307	69.9
	조부부부자녀(3대)	50	11.4
주택유형	단독주택	123	28.0
	연립·다세대주택	75	17.1
	아파트	209	47.6
	상가주택	26	5.9
	기타	6	1.4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93	21.2
	2년 이상~3년 미만	91	20.7
	3년 이상~4년 미만	106	24.1
	4년 이상~5년 미만	57	13.0
	5년 이상	92	21.0
합계		439	100

<표 21>은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결과이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은 60.4%, 여성은 39.6%로 나타났다. 10명 중 남성이 6명인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51.9%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대도 0.5%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도 전체의 2.7%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초·중·고졸이 46.7%를, 대졸이 46.0%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도 4.3%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은 11년 이상 20년 이하가 전체의 35.1%로 조사되었으며 6년 이상~10년 이하가 21.4%를, 21년 이상~ 30년 이하가 19.4%로 나타났고 3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는 13.9%, 1년 이상 ~5년 이하는 10.3%로 조사되었다. 직업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가 전체의 42.8%로 높았으며 주부가 24.1%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주부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기타가 조사되었으며, 직장인의 참여율도 15.3%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이 1.4%를 차지하였다. 가족형태를 보면 부부와 자녀(2대)가 사는 비율이 전체의 69.9%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부만 사는 가족형태가 15.5%를 조부(부부·자녀,3대)의 가족형태도 11.4%로 나타났고 1인가족도 3.2%로 조사되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전체의 47.6%로 조사되었고, 단독주택이 28.0%를 연립·다세대 주택은 17.1%를 상가주택은 26.6%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기타가 1.4%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을 보면 3년 이상~4년 미만이 2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년 미만이 21.2%를, 5년 이상이 21%를, 2년 이상~3년 미만이 20.7%를,4년 이상~5년 미만이 13%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측정(measurement)이란 각 조사단위의 어떤 특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측하여 수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통계조사의 측정대상 중에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 때 설문지나 검사지가 조사하고자

하는 본래의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데 이때 측정도구의 타당도(validity)가 사용된 조사도구가 조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는 가의 문제로 조사도구의 적합성에 해당한다. 신뢰도(reliability)는 실험, 검사, 조사 등 어떤 측정절차에서나 적용되는 개념으로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하는 경우에 얼마나 일치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측도이다. 요컨대 신뢰도는 하나의 질문 또는 여러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특성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가를 나타내 주는 값이다(배규환·이기재, 2010: 171−181). 이렇듯 타당도와 신뢰도는 연구를 위해 수집하고 측정한 자료가 실증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특히 내적 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method)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문항들이 같은 주제를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측정변수의 진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법을 이용한 신뢰도 추정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의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항목을 제거하여 알파계수 향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수집된 많은 변수들을 유사한 항목(공통차원)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키는 분석방법이다.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법(principle components)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eigen value)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각 변수의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0.3이상이면 어느 정도 유의하다고 보여, 0.4 이상은 중요하게 의미있는 것으로, 0.5 이상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배일섭 외, 1998; 이태화, 2013: 90). 본 연구에서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고유치(eigen value)는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고유치1 이상, 요인 적재량 0.4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각회전 방법 중 베리멕스(verimax) 회전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2.1 사회적 자본에 관한 요인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 사회적 자본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성개념	설문문항	요인			
		1	2	3	4
신뢰	I.1	−0.023	0.008	**0.773**	0.094
	I.2	0.355	0.007	**0.480**	0.288
	I.3	0.166	0.169	**0.665**	0.277
	I.4	−0.013	0.180	**0.749**	0.073
	I.5	0.087	0.122	**0.810**	0.008
참여	I.6	0.216	**0.573**	0.177	0.382
	I.7	0.263	**0.608**	0.056	0.316
	I.8	0.053	**0.722**	0.142	−0.080
	I.9	0.170	**0.661**	0.203	−0.060
	I.10	0.127	**0.691**	0.080	0.144
호혜성	I.11	0.212	0.350	0.176	**0.516**
	I.12	0.180	0.048	0.014	**0.668**
	I.13	0.118	−0.062	0.204	**0.787**
	I.14	0.122	0.383	0.097	**0.624**
	I.15	0.344	0.448	0.055	**0.465**
네트워크	I.16	**0.745**	0.126	0.009	0.234
	I.17	**0.641**	0.010	0.035	−0.097

	I.18	**0.793**	0.094	0.124	0.063
	I.19	**0.794**	0.179	0.012	0.149
	I.20	**0.756**	0.159	0.077	0.175
고유치(eigen value)		6.053	2.241	1.631	1.416
분산%		30.27	11.21	8.16	7.08
누적(%)		30.27	41.47	49.63	56.71
kaiser-Meyer-Olkin측도		0.871			
Cronbach's alpha		0.78	0.75	0.75	0.78

<표 22>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로서 20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은 적재량이 0.40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적 자본 변수들로서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용된 문항들로서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모두 0.6이상의 신뢰도 계수값을 보여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2.2.2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요인

다음으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3>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성개념	설문문항	요인			
		1	2	3	4
자치성	II.1	0.123	0.160	**0.760**	-0.112
	II.2	0.105	0.116	**0.660**	0.190
	iI.4	0.194	0.031	**0.752**	0.097
	II.5	0.242	0.081	**0.669**	0.161
프로그램	II.3	-0.030	0.017	0.082	**0.819**

참여성	II.6	0.207	0.009	0.582	**0.476**
	II.7	.0245	0.347	0.192	**0.519**
공익성	II.9	0.236	**0.720**	0.004	0.265
	II.10	0.080	**0.865**	0.140	−0.026
	II.12	−0.045	**0.841**	0.099	−0.095
	II.15	0.175	**0.789**	−0.006	0.141
집단 효능감	II.16	**0.824**	0.012	0.232	0.042
	II.17	**0.830**	0.137	0.179	−0.031
	II.18	**0.823**	0.120	0.093	0.053
	II.19	**0.843**	0.135	0.047	0.077
고유치(eigen value)		4.803	2.204	1.750	1.044
분산(%)		32.02	14.70	11.67	6.96
누적(%)		32.02	46.72	58.39	65.36
kaiser−Meyer−Olkin측도		0.828			
Cronbach's alpha		0.74	0.51	0.84	0.87

<표 23>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로서 20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은 적재량이 0.4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설문 문항 중 II.8, II.9, II.13, II.14, II.20은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5 이하로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저해하여 제거하였으며, 전체누적 설명력은 65.36%로 나타났다. 각 요인은 적재량이 0.40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변수들로서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용된 문항들로서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자치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은 0.7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성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4.2.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연구대상 변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의 F검증을 하고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으로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를 분석하였으며,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4.2.3.1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

1) 신뢰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다음은 신뢰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다.

<표 24> 신뢰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구분(신뢰)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65	16.24	2.97	0.598	0.550
	여자	174	16.06	3.32		
연령	20대	2	12	4.24	9.859	0.079
	30대	13	15.07	02.10		
	40대	92	16.39	3.54		
	50대	228	16.30	03.00		
	60대	92	15.85	2.83		
	70대 이상	12	16.25	4.11		
학력	초·중·고졸	218	16.27	3.31	4.585	0.101
	대졸	202	16.20	2.85		
	대학원 이상	19	14.73	3.15		
현 거주기간	1년 이상~5년 이하	45	16.82	2.86	4.454	0.348
	6년 이상~10년 이하	94	16.5	2.82		
	11년 이상~20년 이하	154	15.72	3.37		
	21년 이상 ~30년 이하	85	16.47	2.99		
	31년 이상	61	15.91	3.12		
직업	직장인	67	16.02	3.11	4.995	0.288
	자영업자	188	16.17	3.00		
	주부	106	16.34	3.44		
	공무원	6	16.33	1.75		
	기타	72	16.04	3.03		
가족형태	1인가족	14	16.28	2.67	5.656	0.130
	부부만	68	16.51	2.6		
	부부와 자녀(2대)	307	16.23	3.17		

	조부·부부자녀(3대)	50	15.3	3.44		
주택유형	단독주택	123	16.75	3.29	2.994	0.559
	연립·다세대주택	75	16.52	3.05		
	아파트	209	15.69	2.93		
	상가주택	26	15.73	3.38		
	기타	6	18.33	2.42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93	16.16	2.82	2.706	0.608
	2년 이상~3년 미만	91	15.68	3.27		
	3년 이상~4년 미만	106	16.36	3.26		
	4년 이상~5년 미만	57	15.92	3.04		
	5년 이상	92	16.59	3.09		
*p<.05, ** p<.01, ***p<.001						

<표 24>는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 중 신뢰에 대한 차이를 있는지 t검증과 분산분석의 F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신뢰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남성 16.24, 여성이 16.06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신뢰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조금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같은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안 쌓여진 상호간 네트워크와 호혜성이 신뢰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연령에서는 40대가 16.3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20대가 가장 낮게 나왔다. 30대 15.07, 50대 16.30, 60대 15.85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도 16.25로 분석되어 신뢰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 분석은 초·중·고 졸이 16.27, 대졸은 16.20, 대학원 이상도 14.73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신뢰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에 따른 신뢰의 인식정도는 1년 이상 5년 이하가 16. 82, 6년 이상 10년 이하 16.5, 11년 이상~20년 이하 15.72, 21년 이상~30년 이하 16.47, 31년 이상이 15.92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뢰는 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신뢰가 다른 지역의 사람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신

뢰요인에 대한 차이를 통해 사람들은 사회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을 둘러싼 미시적인 환경에서는 이웃 등에 대하여 상호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2) 사회참여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다음은 사회적 자본 중 사회참여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 사회참여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구분	분류(참여)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65	17.88	3.29	2.072	0.038*
	여자	174	17.17	3.86		
연령	20대	2	11.5	2.12	13	0.046*
	30대	13	15.15	4.27		
	40대	92	17.20	4.03		
	50대	228	17.67	3.31		
	60대	92	18.03	3.05		
	70대 이상	12	17.66	4.69		
학력	초·중·고졸	218	18.00	3.53	5.470	0.057
	대졸	202	17.17	3.61		
	대학원 이상	19	17.47	2.24		
현 거주기간	1년 이상~5년 이하	45	16.24	3.83	8.175	0.085
	6년 이상~10년 이하	94	16.93	3.60		
	11년 이상~20년 이하	154	17.51	3.66		
	21년 이상 ~30년 이하	85	18.03	3.08		
	31년 이상	61	19.24	2.86		
직업	직장인	67	16.52	3.95	8.595	0.072
	자영업자	188	18.18	3.10		
	주부	106	18.16	3.51		
	공무원	6	17	2.75		
	기타	72	16.31	3.82		
가족형태	1인가족	14	17.7	3.73	1.565	0.667
	부부만	68	17.41	3.60		
	부부와 자녀(2대)	307	17.64	3.46		
	조부부부·자녀(3대)	50	17.76	3.94		
주택유형	단독주택	123	17.93	3.22	15.598	0.004*
	연립·다세대주택	75	17.46	3.75		

	아파트	209	17.24	3.76		
	상가주택	26	18.69	2.29		
	기타	6	20.16	1.47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93	16.75	3.55	4.252	0.373
	2년 이상~3년 미만	91	17.13	3.50		
	3년 이상~4년 미만	106	17.81	3.81		
	4년 이상~5년 미만	57	17.42	3.13		
	5년 이상	92	18.80	3.19		

*p<.05, ** p<.01, ***p<.001

<표 25>는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 중 사회참여 요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표이다. t검증 결과 성별(t=2.072, p<.05)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F검증 결과 연령(F=13, p<.05), 주택유형(F=15.598, p<.05)에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평균 17.88, 여성이 평균 17.17로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 요인인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60대의 사회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50~60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세대라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아동양육과 가사로부터 독립할 시기이며 인생을 여유있고 보람있게 보내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택유형에 따른 참여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기타 20.16, 상가주택18.69, 단독주택 17.93, 연립·다세대 주택 17.46, 아파트 17.24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에 따른 사회참여에서의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건물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구가 함께 살다보니 서로의 편익을 위하여 상호 소통을 위한 기회가 많을 수 있고 이는 상호 신뢰로 이어져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학력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 직업별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의 분석결과 31년 이상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원주민일 경우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동창회, 동호회 및 크고 작은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이에 따른 네트워크의 확장은 더 많은 이웃을 알게 되고, 이웃 사람들 간에 신뢰를 두텁게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 결국 모임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임의 수가 많은 사람은 상호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조성하게 되어 지역사회단체(민간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직업별로 참여에 관한 인식에서 자영업자 평균18.18, 주부 평균 18.16, 공무원 평균 17, 직장인 평균 16.52, 기타 평균 16.31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주부가 높은 이유는 공무원, 직장인과 달리 직업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직업이기에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가족형태, 주민자치위원활동기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호혜성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으로 얻어진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호혜성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분류(호혜성)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65	18.16	2.80	-1.369	0.171
	여자	174	18.54	2.96		
연령	20대	2	14	4.24	8.223	0.144
	30대	13	16.30	3.59		
	40대	92	18.06	3.10		
	50대	228	18.47	2.73		
	60대	92	18.47	2.56		
	70대 이상	12	18.83	3.92		
학력	초·중·고졸	218	18.58	3.01	3.560	0.169
	대졸	202	18.07	2.74		
	대학원 이상	19	17.78	2.27		

현 거주기간	1년 이상~5년 이하	45	17.2	2.37	5.001	0.287
	6년 이상~10년 이하	94	18.01	2.87		
	11년 이상~20년 이하	154	18.16	3.05		
	21년 이상 ~30년 이하	85	19.03	2.68		
	31년 이상	61	18.96	2.69		
직업	직장인	67	17.88	2.82	1.422	0.540
	자영업자	188	18.48	2.90		
	주부	106	18.90	2.77		
	공무원	6	16.83	1.94		
	기타	72	17.51	2.85		
가족형태	1인가족	14	17.85	2.82	1.208	0.751
	부부만	68	18.22	2.93		
	부부와 자녀(2대)	307	18.41	2.82		
	조부부부자녀(3대)	50	17.96	3.16		
주택유형	단독주택	123	18.57	3.25	14.360	0.006*
	연립·다세대주택	75	17.62	3.19		
	아파트	209	18.24	2.50		
	상가주택	26	19.26	2.60		
	기타	6	19.83	1.94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93	18.04	2.62	11.866	0.018*
	2년 이상~3년 미만	91	18.34	2.54		
	3년 이상~4년 미만	106	18.16	3.43		
	4년 이상~5년 미만	57	18.31	2.79		
	5년 이상	92	18.73	2.77		

*p<.05,**<.01, ***p<.0.001.

<표 26>은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에 대한 차이를 있는지 t검증과 분산분석의 F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호혜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주택유형(F=14.360, p<.01),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F=11.866,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유형에서는 기타 평균 19.83, 상가주택 평균 19.26, 단독주택 평균 18.57, 아파트 평균 18.24,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17.62로 나타났다. 위원활동기간별에서는 5년 이상 평균 18.73, 2년 이상~3년 미만 평균 18.34, 4년 이상~5년 미만 평균 18.31, 3년 이상~4년 미만 18.16, 2년 미만 평균 18.04로 나타났다. 호혜성은 상호 이익이 되게 하는 성질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배려적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주택유형에서 호혜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다

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적 사고의 바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주택유형에 따른 호혜성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의 리더로서 지역사회문제해결과 동네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주민자치위원의 호혜성은 자원봉사로 나타난다. 5년 이상 지역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와 지역문제에 대하여 잘 알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적극적인 주민자치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 내게 주어지는 물질적 소득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활동 또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여러 역할을 통해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기에 호혜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4)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으로 얻어진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네트워크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분류(네트워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65	17.29	3.33	−0.2923	0.772
	여자	174	17.38	3.28		
연령	20대	2	15.5	0.70	5.130	0.400
	30대	13	17.30	3.27		
	40대	92	17.10	3.21		
	50대	228	17.60	3.28		
	60대	92	17.05	3.29		
	70대 이상	12	16.16	4.64		
학력	초·중·고졸	218	17.57	3.61	8.841	0.012*
	대졸	202	17.00	2.99		
	대학원 이상	19	17.84	2.63		
현 거주기간	1년 이상~5년 이하	45	16.75	2.55	10.841	0.028*
	6년 이상~10년 이하	94	16.65	3.62		

	11년 이상~20년 이하	154	17.35	3.46		
	21년 이상 ~30년 이하	85	17.78	2.83		
	31년 이상	61	18.06	3.33		
직업	직장인	67	16.94	3.35	2.757	0.599
	자영업자	188	17.71	3.25		
	주부	106	17.58	3.43		
	공무원	6	17.33	1.96		
	기타	72	16.29	3.11		
가족형태	1인가족	14	16.35	2.81	3.091	0.378
	부부만	68	17	3.55		
	부부와 자녀(2대)	307	17.49	3.20		
	조부부부·자녀(3대)	50	17	3.68		
주택유형	단독주택	123	17.18	3.72	8.581	0.072
	연립·다세대주택	75	16.94	3.51		
	아파트	209	17.43	2.98		
	상가주택	26	17.76	3.08		
	기타	6	19.33	2.87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93	16.75	2.78	6.794	0.147
	2년 이상~3년 미만	91	16.80	3.33		
	3년 이상~4년 미난	106	17.45	3.23		
	4년 이상~5년 미만	57	18.01	3.57		
	5년 이상	92	17.85	3.57		

*p<.05,**<.01, ***p<.0.001.

<표 27>은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에 대한 차이를 있는지 t검증과 분산분석의 F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학력(F=8.841, p<.0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F=10.841, p<.05)로 나타났다. 학력별 평균을 살펴보면 초·중·고졸 17.57, 대졸 평균 17.00, 대학원 이상 17.84로 나타났다. 학력별 네트워크에 관한 인식은 사회적 자본이 갖는 장점의 하나인 네트워크가 잠재적으로는 자원의 형태로 인식되기에 상호 신뢰가 깊어질수록 네트워크의 구조도 더욱 촘촘하게 될 수 있기에 높게 측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 평균은 1년 이상~5년 이하 16.75, 6년 이상~10년 이하 16.65, 11년 이상~20년 이하 17.35, 21년 이상~30년 이하 17.78, 31년 이상 18.06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 기간이 거주기간이 긴 경우에도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지역구성원의 경우 이웃과의 네트워크는 넓고 깊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지역 구성원 간 쌓여온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와 네트워크는 동반자의 관계라 할 수 있다. 한편 학력과 현 거주기간에 따른 네트워크의 차이는 학연과 지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서의 네트워크로 비춰질 수도 있다.

4.2.3.2 자치회관 조직성과에 대한 차이분석

1) 자치성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다음으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자치성에 대한 차이분석으로 얻어진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자치성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분류(자치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65	14.63	2.57	−2.563	0.010*
	여자	174	15.27	2.55		
연령	20대	2	15.5	4.94	3.773	0.582
	30대	13	14.53	2.84		
	40대	92	14.90	2.51		
	50대	228	15.02	2.66		
	60대	92	14.71	2.43		
	70대 이상	12	13.83	1.99		
학력	초·중·고졸	218	14.88	2.41	4.064	0.131
	대졸	202	14.93	2.77		
	대학원 이상	19	14.47	2.45		
현 거주기간	1년 이상~5년 이하	45	15.04	2.46	2.243	0.691
	6년 이상~10년 이하	94	14.51	2.79		
	11년 이상~20년 이하	154	14.83	2.60		
	21년 이상 ~30년 이하	85	15.16	2.43		
	31년 이상	61	15.09	2.46		
직업	직장인	67	14.10	3.16	10.138	0.038*
	자영업자	188	14.94	2.44		
	주부	106	15.71	2.39		
	공무원	6	13.66	1.96		
	기타	72	14.36	2.31		
가족형태	1인가족	14	13.92	2.86	4.424	0.219
	부부만	68	14.89	2.82		

	부부와 자녀(2대)	307	14.94	2.45		
	조부부부자녀(3대)	50	14.82	2.91		
주택유형	단독주택	123	14.91	2.29	8.521	0.074
	연립·다세대주택	75	14.88	2.65		
	아파트	209	14.83	2.74		
	상가주택	26	14.76	2.02		
	기타	6	16.83	3.18		
위원활동 기간	2년 미만	93	14.56	2.34	7.847	0.097
	2년 이상~3년 미만	91	14.75	2.91		
	3년 이상~4년 미만	106	14.98	2.77		
	4년 이상~5년 미만	57	15.29	2.44		
	5년 이상	92	14.97	2.31		

*p<.05,**<.01, ***p<.0.001.

분석결과 설문응답자의 성별(F=−2.563, p<.05), 직업(F=10.138, p<.05) 등에서 자치성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평균 14.63, 여성 평균 15.27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자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과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여러 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중·장년여성의 특성은 가정을 넘어 지역사회에 헌신하려는 이타심의 발로로 스스로 지역을 이끌어 나가려는 성향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직업별 차이분석은 주부가 15.71, 자영업자 14.94, 기타 14.36, 직장인 14.10, 공무원 13.66으로 분석되었다. 자치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자치성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이 모아진 결과로 직업별 분석 결과에서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주부와 자영업자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자치성은 자치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최근 자치회관은 주민스스로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고 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무엇보다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거나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자치성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참여성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다음으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프로그램 참여성에 대한 차이분석으로 얻어진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프로그램 참여성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분류(프로그램 참여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65	9.74	2.15	−1.540	0.124
	여자	174	10.05	1.91		
연령	20대	2	9.5	0.70	4.036	0.544
	30대	13	10.76	1.87		
	40대	92	10.18	2.18		
	50대	228	9.93	2.09		
	60대	92	9.43	1.84		
	70대 이상	12	8.66	1.87		
학력	초·중·고졸	218	9.556	2.00	0.525	0.769
	대졸	202	10.18	2.08		
	대학원 이상	19	10.21	2.20		
현 거주기간	1년 이상~5년 이하	45	10.35	2.04	1.972	0.741
	6년 이상~10년 이하	94	10.02	2.02		
	11년 이상~20년 이하	154	9.66	2.11		
	21년 이상~30년 이하	85	10.04	2.15		
	31년 이상	61	9.55	1.84		
직업	직장인	67	9.97	2.29	8.025	0.091
	자영업자	188	9.70	2.08		
	주부	106	10.16	1.97		
	공무원	6	11.16	.075		
	기타	72	9.65	1.95		
가족형태	1인 가족	14	9.14	2.24	0.539	0.910
	부부만	68	10.23	2.13		
	부부와 자녀(2대)	307	9.90	2.04		
	조부부부자녀(3대)	50	9.38	1.97		
주택유형	단독주택	123	9.57	2.08	0.664	0.956
	연립·다세대주택	75	9.93	1.95		
	아파트	209	10.01	2.10		
	상가주택	26	9.76	2.00		
	기타	6	10.5	1.97		
위원활동 기간	2년 미만	93	9.98	1.72	12.446	0.014
	2년 이상~3년 미만	91	9.72	2.36		
	3년 이상~4년 미만	106	100.06	2.13		

	4년 이상~5년 미만	57	10.10	2.16		
	5년 이상	92	9.52	1.84		
*p<.05,**<.01, ***p<.0.001.						

<표 29>는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프로그램 참여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t검증과 분산분석의 F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여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참여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분석결과 낮은 참여율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르신 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참여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회진흥기능, 지역특화 기능, 마을환경 바꾸기, 지역문제토론 등의 주민자치기능 등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3) 공익성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표 30> 공익성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분류(공익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65	10.70	3.16	0.726	0.467
	여자	174	10.47	3.50		
연령	20대	2	11	4.24	1.838	0.871
	30대	13	11.53	3.82		
	40대	92	10.97	3.18		
	50대	228	10.39	3.40		
	60대	92	10.77	3.12		
	70대 이상	12	9.75	3.07		
학력	초·중·고졸	218	10.82	3.36	1.328	0.515
	대졸	202	10.44	3.29		
	대학원 이상	19	10.05	2.71		
현	1년 이상~5년 이하	45	11.02	2.87	6.668	0.154

거주기간	6년 이상~10년 이하	94	10.29	3.31		
	11년 이상~20년 이하	154	10.79	3.50		
	21년 이상 ~30년 이하	85	10.42	3.51		
	31년 이상	61	10.59	2.76		
직업	직장인	67	10.44	3.71	10.729	0.030*
	자영업자	188	10.88	3.10		
	주부	106	10.31	3.72		
	공무원	6	11	2.75		
	기타	72	10.45	2.76		
가족형태	1인 가족	14	11.21	2.15	3.875	0.275
	부부만	68	11.29	3.20		
	부부와 자녀(2대)	307	10.49	3.34		
	조부부부자녀(3대)	50	10.22	3.40		
주택유형	단독주택	123	10.25	3.20	3.538	0.472
	연립·다세대주택	75	10.78	3.36		
	아파트	209	10.53	3.17		
	상가주택	26	11.53	3.65		
	기타	6	14.5	4.96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93	10.93	2.96	6.714	0.152
	2년 이상~3년 미만	91	10.32	3.66		
	3년 이상~4년 미만	106	10.93	3.38		
	4년 이상~5년 미만	57	10.29	2.84		
	5년 이상	92	10.39	3.42		

*p<.05,**<.01, ***p<.0.001.

<표 30>은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공익성 요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표이다. 분석결과 공익성 요인은 설문응답자의 직업(F=10.720,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별 평균은 공무원 11, 자영업자 10.88, 기타 10.45, 직장인 10.44, 주부 10.31로 나타났다. 공익은 행정이 추구하여 할 본질적 가치로 직업별로 공무원이 공익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공익성은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지역사회 안으로 끌어들여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는 하나 보통 미취학 아동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가 않다. 최근 저출산 문제, 보육과 사교육비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자치회관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집단효능감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중 마지막으로 집단효능감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31>은 분석결과이다.

<표 31> 집단효능감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구분	분류(집단효능감)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자	265	14.13	2.90	-1.004	0.315
	여자	174	14.41	2.85		
연령	20대	2	16	5.65	2.730	0.741
	30대	13	13.53	2.60		
	40대	92	14.21	2.80		
	50대	228	14.21	2.96		
	60대	92	14.23	2.77		
	70대 이상	12	15.5	2.46		
학력	초·중·고졸	218	14.56	2.86	1.276	0.528
	대졸	202	13.96	2.80		
	대학원 이상	19	13.52	3.38		
현 거주기간	1년 이상~5년 이하	45	13.71	2.95	6.885	0.142
	6년 이상~10년 이하	94	14.35	2.93		
	11년 이상~20년 이하	154	14.26	3.05		
	21년 이상 ~30년 이하	85	14.36	2.84		
	31년 이상	61	14.24	2.27		
직업	직장인	67	14.19	2.59	2.475	0.649
	자영업자	188	14.37	2.91		
	주부	106	14.56	2.96		
	공무원	6	14.16	2.04		
	기타	72	13.48	2.86		
가족형태	1인 가족	14	14.57	3.56	1.760	0.624
	부부만	68	14.02	2.73		
	부부와 자녀(2대)	307	14.24	2.86		
	조부·부부·자녀(3대)	50	14.46	2.94		
주택유형	단독주택	123	14.37	2.98	3.917	0.417

	연립·다세대주택	75	15.05	2.92		
	아파트	209	13.78	2.69		
	상가주택	26	14.46	2.65		
	기타	6	16.5	4.18		
위원활동기간	2년 미만	93	13.80	2.79	2.077	0.721
	2년 이상~3년 미만	91	14.08	2.84		
	3년 이상~4년 미만	106	14.40	3.05		
	4년 이상~5년 미만	57	14.54	3.00		
	5년 이상	92	14.46	2.67		

*p<.05,**<.01, ***p<.0.001.

설문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 분석 결과 집단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으로 지역 사회 문제, 마을환경문제, 자율방범으로 지역사회안전의 가능, 공동체 사업 운영으로 지역경제의 회복 가능성,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등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최근 안전행정부(2013)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심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지도 제작, 독거노인 안전 네트워크 구성, 골목길 반사경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스스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집단효능감이 발휘된다면 자치회관은 자치성이 확보되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이 될 수 있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것이야 말로 지역사회복지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4 기술통계분석

기술통계분석은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주요문항 및 요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기술통계분석

구분	분류	표본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적 자본	신뢰	439	16.17	3.11	6	25
	사회참여	439	17.60	3.54	5	25
	호혜성	439	18.31	2.87	9	25
	네트워크	439	17.32	3.30	6	25
자치회관조직성과	자치성	439	14.88	2.58	6	20
	프로그램 참여성	439	9.87	2.06	4	15
	공익성	438	10.61	3.30	4	20
	집단효능감	439	14.24	2.87	4	20

<표 32>는 연구대상 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 등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에서 평균은 신뢰 16.17, 사회참여 17.60, 호혜성 18.31, 네트워크 17.32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적 자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보통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의 평균은 자치성 14.88, 프로그램 참여성 9.87, 공익성 10.61, 집단효능감 14.24로 나타났다. 이 중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집단효능감은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익성은 보통보다 낮게 나왔다.

4.2.5 상관관계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가 등간 또는 비율 척도로 측정되었을 경우 두 변수 간에 얼마나 밀접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통계분석 기법으로 두 변수 간의 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상관관계는 그 값이 1에 근접할수록 정(+)의 관계가 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부(−)의 관계를, 0에 근접할수록 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값이 0.20이하일 경우는 아주 낮은 상관관계, 0.20~0.40은 낮은 상관관계, 0.40~0.7은 높은 상관관계, 0.70~0.90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 <표18>은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네 개의 주요 변수에 대한 내적 신뢰도 추정값(Cronbach's Alpha)을 괄호 안에 제시하고 있고, 또한 네 개의 변수 간의 상관 관계값을 보여준다.

<표 33> 상관관계분석

		사회적 자본				자치회관 조직성과			
구분	분류	1	2	3	4	5	6	7	8
사회적 자본	신뢰	(0.78*)							
	사회참여	0.364***	(0.75*)						
	호혜성	0.381***	0.526***	(0.75*)					
	네트워크	0.238***	0.385***	0.455***	(0.78*)				
자치 회관의 조직 성과	자치성	0.222***	0.230***	0.302***	0.492***	(0.74*)			
	프로그램 참여성	0.122*	0.046	0.112*	0.338***	0.478***	(0.51*)		
	공익성	0.195***	0.193***	0.213***	0.247***	0.236***	0.274***	(0.84*)	
	집단 효능감	0.291***	0.269***	0.364***	0.364***	0.388***	0.288***	0.278**	(0.87*)

*p<.05,**<.01, ***p<.0.001.

<표 33>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프로그램 참여성만은 사회적 자본의 사회참여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변수들 간에는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 간의 지나친 상관으로 인해서 결과가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다중공선성의 경우 상관관계가 0.8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관계수가 0.7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대

부분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또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역시 높지 않아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2.6 인과 관계 회귀분석

4.2.6.1 사회적 자본이 자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34> 사회적 자본이 자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 \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사회적 자본>				
신뢰	.18(.03)***			
사회참여		.15(.03)***		
호혜성			.26(.04)***	
네트워크				.38(.04)***
<통제변수>				
여성	.20(.35)	.38(.36)	.06(.34)	.10(.31)
연령	−.23(.17)	−.28 (.17)	−.33(.16)*	−.10(.15)
학력	.10(.23)	.08(.23)	.15(.22)	.19(.20)
거주기간	.13(.11)	.01(.11)	−.01(.11)	−05(.10)
활동기간	.09(.09)	.074(.44)	.13(.09)	−.00(.08)
직업−(자영업)	.89(.37)**	.75(.37)**	.81(.36)*	.59(.33)
직업−(주부)	1.41(.47)***	1.1(.48)**	1.37(.46)**	1.34(.42)**
직업(공무원)	−1.41(1.07)	−.38(1.07)	−.09(.1.05)	−.69(.96)
직업−(기타)	.40(.44)	.43(.44)	.49(.43)	.49(.39)
가족−(부부만)2	.85(.73)	.92(.73)	.87(.72)	.78(.66)
가족−(2대)	.79(.69)	.76(.70)	.72(.68)	.54(.62)
가족(3대)	.92(.77)	.75(.77)	.83(.75)	.73(.68)
주택유형−(연립다세대)	.13(37)	.08(.38)	.29(.37)	.13(.33)
주택유형−(아파트)	.24(.31)	.01(.31)	.05(.30)	−.21(.28)
주택유형−(상가주택)	−.07(.55)	−.31(.56)	−.32(.54)	−.29(.50)
주택유형−(기타)	1.07(1.06)	1.0(1.07)	.89(1.04)	.66(.95)
−cons	10.39(1.32)***	11.46(1.24)***	9.51(1.29)***	7.67(1.13)***
N		439		
R−squared	.07	0.1	0.14	0.28
F	2.96***	2.75***	3.99***	9.42***

*p<.05,**<.01, ***p<.0.001,

<표 34>는 사회적 자본의 변수인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가 자치

회관의 조직성과인 자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 모두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표이다. 분석전략으로는 종속변수를 자치성으로 두고, 사회적 자본의 개별적 구성요소인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포함시켜서 각각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 가족형태, 주택유형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 직업, 가족형태, 주택유형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자본은 자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모형1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자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별과에 의하면, 신뢰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자치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주부와 직장인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해석하면, '주부'가 '직장인'에 비해 높은 자치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은 '직장인'에 비해 높은 자치성을 나타낸다. 이는 자치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을 받는 직장인들과 달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자치회관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적인 환경이나 중간적인 환경까지도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모형1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07로 전체 변동의 7%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2.90($p<0.001$)으로 나와 모형1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측정결과 사회참여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자치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회관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을 꾸려가는 곳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봉사나 강요에 의하거나 다른 직능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최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역인재를 뽑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된 발전적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 중

자영업자와 주부는 시간상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으로, 지역사회단체나 자선활동 및 구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아울러 최근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을 보면 은퇴한 전문가나 현업에 종사하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특징은 자치회관을 위한 자발적인 지역참여로 이어지고 적극적인 자원봉사로 이어지기에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은 각 자치회관에 상근 실무자를 두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상근 실무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시간을 조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상황을 파악하기 쉽다. 아울러 각 자치회관은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회관의 업무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회관의 업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상근 실무자를 배치한 곳은 운영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위원의 참여가 부족하다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 공공공간으로서의 자치회관에 대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및 이웃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시킨다. 이는 상호신뢰로 이어지며 자발적 참여로 이어져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모형2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1로 전체 변동의 10%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2.75($p<0.001$)으로 나와 모형2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호혜성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중 자치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회관은 지역의 구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호혜성은 이웃과의 상호교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서로 혜택을 누리는 성질을 의미한다. '인지상정'이라는 옛말에서도 알 수 있듯, 예나 지금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웃 간 교류가 잦은 공간인 자치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일손이 요구될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기에 성공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민

자치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하는 지역행사는 다양하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자치성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혜성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형3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14로 전체 변동의 14%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3.99($p<0.001$)으로 나와 모형3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네트워크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치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자치회관은 무엇보다도 자치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자치성을 자치라는 의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의 솔선참가로 마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의식을 가진 위원이 마을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은 무 대가성의 자원봉사로 자치회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가까이는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부터 시작하여 지역 밖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자치회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로부터 시작하여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자치성을 이룩할 수 있다.

모형4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28로 전체 변동의 28%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9.42($p<0.001$)로 나와 모형4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자치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각 구성요소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은 시간적·사회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업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자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문직에 종사했던 은퇴자 또는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이 시간적·사회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호혜성이 발휘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도시화, 산업화, 다원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다보니 여유가 없이 살아간다. 여유 없는 삶은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현대 사회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치회관은 지역의 구심체로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이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자치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6.2 사회적 자본이 프로그램 참여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35> 사회적 자본이 프로그램 참여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 \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사회적 자본>				
신뢰	.07(.03)*			
사회참여		.04(.02)		
호혜성			.09(.03)**	
네트워크				.22(.02)***
<통제변수>				
여성	−.02(.03)	.02(.29)	−.07(..28)	−.06(.27)
연령	−.32(.28)*	−.34(.14)*	−.36(.14)**	−.25(.13)*
학력	.39(.13)*	.38(.18)*	.40(.14)**	.44(.17)*
거주기간	.00(.18)	−.03(.09)	−.05(.18)	−.09(.08)
활동기간	.04(.08)	.03(.07)	.05(.08)	−.01(.07)
직업−(자영업)	−.11(.07)	−.16(.30)	−.14(.30)	−.28(.28)
직업−(주부)	.40(.30)	.33(.39)	.39(.38)	.35(.36)
직업(공무원)	1.2(.38)	1.26(.87)	1.36(..86)	1.06(.82)
직업−(기타)	−.08(.87)	−.08(.36)	−.57(.36)	−.03(.34)
가족−(부부만)2	1.0(.59)*	1.02(.60)*	1.00(.59)*	.95(.56)*
가족−(2대)	.36(.29)	.35(.56)	.33(..56)	.22(.53)
가족(3대)	.07(.56)	−.00(.62)	.03(.62)	−.00(.58)
주택유형−(연립다세대)	.31(.62)	.29(.30)	.36(..30)	.30(.28)
주택유형−(아파트)	.19(.25)	.10(.25)	.11(..25)	−.03(.23)
주택유형−(상가주택)	.25(.45)	.17(.45)	.15(..45)	.14(.42)
주택유형−(기타)	.51(.86)	.53(.86)	.46(.86)	.24(.81)
−cons	.8.1(1.07)***	8.89(1.00)***	8.00(1.06)	6.08(.97)
N		439		
R−squared	0.08	0.08	0.09	0.19
F	2.30**	2.08**	2.41**	5.52***

*p<.05,**<.01, ***p<0.001,

<표 35>는 사회적 자본의 변수인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프로그램 참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 모두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표이다 분석전략으로는 종속변수로 프로그램 참여성을 두고, 사회적 자본의 개별적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포함시켜서 각각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 가족형태, 주택유형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 직업, 가족형태, 주택유형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에서 모두 연령, 학력, 가족 중 부부만 사는 형태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모형1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프로그램 참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자치회관은 지역의 구심체로서 지역주민의 소통과 나눔의 장이다.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문화가 형성된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자치회관이라는 공간에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가 생긴다. 이런 신뢰는 지역의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신뢰를 통한 지역의 정보획득은 프로그램 참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서구 발산1동 자치회관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는 목표 아래, 발산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손으로 직접 축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다. 주요 참여자는 도농자매결연마을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참여시켰으며, 주민장기자랑을 통해 일반인의 참여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자치위원의 신뢰가 지역주민이 마을행사에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유도하는 계기로, 주민이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다. 모형1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08로 전체 변동의 8%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2.30($p<0.001$)으로 나와 모형1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참여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프로그램 참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통제변수를 살펴보

면 학력과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 주택유형의 기타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학력은 초·중·고졸부터 대졸 그리고 대학원 이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학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참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학력일수록 프로그램 참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봉구 방학1동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대학교수,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력의 특성은 지역에 대한 재능기부로 이어지고 마을을 살찌우고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활동기간도 프로그램 참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마장동의 마장동 정체성 찾기 사업은 프로그램 참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주민자치위원의 대부분이 마장동에 오래 거주한 지역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점은 급격한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희박해져 가는 지역정체성을 회복하여 마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전통과 문화가 깃든 품격있는 고장을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지역주민, 통장, 학교,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사진을 수집하였으며, 토박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이야기를 수집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활동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 사정에 밝을 수 있는 장점을 제대로 살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지역활동가를 발굴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한다면, 자치회관은 지역전문가의 참여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2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08로 전체 변동의 8%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2.08($p<0.001$)으로 나와 모형2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을 살펴보면, 연령, 학력, 주택유형에서 호혜성은 자치회관 조직성과인 프로그램 참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호혜성이 발휘됨을 알 수 있다. 각 자치회관은 마을 행사와 축제 등 인원동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각 해당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원봉사로서 자치회관의 행사에 참여하여 운영한다. 호혜성은 이타심의 발로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학력이 호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기가 하위 욕구부터 채워지게 되며 상위욕구로 발전하며 공익성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영등포구 신길1동 자치회관은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수화를 배우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형3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09로 전체 변동의 9%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2.42 ($p<0.001$)으로 나와 모형3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가 프로그램 참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4의 분석결과 네트워크는 프로그램 참여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회관은 지역 유관기관 또는 자치회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자치회관은 자치회관 도농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 상호교류가 가지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예를 들면 농촌 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한 농·특산물 거래 또는 농촌 일손 돕기 등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서로 볼 수 있는 이점과 도농자매결연을 통한 상호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자치회관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랑구는 신내 1동 도자기 만들기 사업을 통해 유휴공간 홍보컵을 제작하여 면목 4동 자치카페 음료 판매 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유휴 공간 홍보용 종이컵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았던 전통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미덕이 현대사회에서 재탄생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모형4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19로 전체 변동의 19%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5.52 ($p<0.001$)으로 나와 모형4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2.6.3 사회적 자본이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36> 사회적 자본이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 \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사회적 자본>				
신뢰	.20(.05)***			
사회참여		.20(.04)***		
호혜성			.25(.05)***	
네트워크				.25(.04)***
<통제변수>				
여성	−.06(.05)	.19(.46)	−.20(.45)	−.16(45)
연령	−.28(.46)	−.35(.46)	−.38(.22)*	−.21(22)
학력	−.60(.22)*	−.62(.29)*	−.56(.29)*	−.56(.29)*
거주기간	.11(.15)	−.36(.15)	−.03(.15)	−.03(.14)
활동기간	−.18(.12)	−.21(.12)*	−.1(.12)4	−.24(.12)*
직업−(자영업)	.51(.48)	.32(.48)	.4(.47)3	.31(.47)
직업−(주부)	−.11(.61)	−.49(.62)	−.1(.61)3	−1.1(.60)6
직업(공무원)	.32(1.38)	.34(1.37)	.6(1.37)4	.17(1.36)
직업−(기타)	.29(.57)	.34(.57)	.3(.57)7	.33(.56)
가족−(부부만)	−.01(.95)	.05(.94)	−.0(.94)0	−.05(.93)
가족−(2대)	−.94(.89)	−.97(.89)	−1.0(.89)1	−1.10(.88)
가족(3대)	−1.4(.99)	−1.60(.98)	−1.5(.98)4	−1.64(.97)*
주택유형−(연립다세대)	.55(.48)	.47(.48)	.7(.48)	.53(.48)
주택유형−(아파트)	.68(.40)*	.42(.40)	.47(.40)	.2(.39)8
주택유형−(상가주택)	1.36(.72)*	1.08(.71)	1.1(.71)0	1.1(.71)6
주택유형−(기타)	4.45(1.37)**	4.30(1.37)**	4.3(1.36)**	4.30(1.35)**
−cons	9.60(1.71)***	10.30(1.59)***	9.14(1.68)	9.23(1.61)
N		439		
R−squared	0.09	0.10	0.11	0.12
F	2.53***	2.73***	2.89***	3.27***

*p<.05,**<.01, ***p<.0.001,

<표 36>은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자본의 변수인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 모두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표이다. 분석전략으로는 종속변수를 공익성으로 두고, 사회적 자본의 개별적 구성요소인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포함시켜서 각각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 가족형태, 주택유형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 직업, 가족형태, 주택유형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공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뢰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공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학력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은 학력의 향상에서도 알 수 있듯 대졸이상 학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주는 장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이 향상될수록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익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택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아파트, 상가주택, 기타 유형에 사는 사람들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공익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상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며 경제·문화·주거·돌봄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특화 사업도 그 중 하나로 성북구 길음 1동 자치회관은 어린이 공동육아를 실시하고 있다. 길음 1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아파트 비중이 97.6%로 동질의 주거형태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공동체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주택의 형태는 자치회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공동육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접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의 효과 및 활동내역에 관심을 갖고 수강신청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 자치회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곳은 품앗이 형태의 엄마표 수업으로 자녀를 직접 보육하고 교육하는 곳이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치회관의 중요성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인식으로 나아가 능동적인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모형1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09로 전체 변동의 9%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2.53(p<0.001)으로 나와 모형1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사회적 자본의 참여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학력,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 주택유형 중 기타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중구 신당 1동 자치회관은 지역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고시원이 많아 임시 거주자가 많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어울려 살 수 있는 마을 축제를 통해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였다, 아울러 마을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여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주민자치위원과 마을 토박이,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투어를 추진하였다. 사라져가는 마을의 자랑거리를 찾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알려지지 않고 있던 전통문화관을 발굴하여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을 지역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잊혀져 가는 지역의 자랑거리를 찾는 신당 1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내어 공익을 실현한 모델이라 할 것이다. 모형2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10로 전체 변동의 10%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2.73(p<0.001)으로 나와 모형2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공익성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호혜성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공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은 보통 40~60대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대이다. 보통 50대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가족 중심의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삶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져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익성의 실현을 위한 마음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에 의한 네트워크가 공익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욕구이론에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미

시적인 체계에서 확장되어 가는 네트워크는 중간체계를 지나 거시적인 체계로 확장된다. 동대문구 회기동 자치회관은 네팔 다딩의 오지마을 어린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지역 종교단체인 연화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3년의 약속'이라는 장기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커피를 심어주기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5,000그루의 커피나무를 성공적으로 심어주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인근 대학병원과의 제2의 네트워크를 맺고, 공정무역을 통한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목표로 공익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부부만 사는 가족 유형도 다른 가족 유형보다 공익성이 높게 나타났다. 용산구 용문동 자치회관은 21세기 첨단산업의 발굴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내체류 외국인 1백만 명의 글로벌 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딸 결혼 이민자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여 언어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용문동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의 노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한국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 공익성의 실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였다. 모형3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11로 전체 변동의 11%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2.89($p<0.001$)으로 나와 모형3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학력,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 가족 유형 중 3대 가족, 주택유형(기타)에서 네트워크는 프로그램 참여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는 강하고 이는 공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활동기간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함께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간 네트워크는 두터워진다. 이런 까닭에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사업에 위원 간 참여도가 높아지며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성의 성질로 발전할 수 있다. 모형4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12로 전체 변동의 12%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3.27(p<0.001)으로 나와 모형4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2.6.4 사회적 자본이 집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37> 사회적 자본이 집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 \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사회적 자본>				
신뢰	.25(.04)***			
사회참여		.21(.04)***		
호혜성			.38(.04)***	
네트워크				.32(.03)***
<통제변수>				
여성	.37(.04)	.64(.40)	.18(.37)	.24(.37)
연령	.15(.18)	.08(.19)	.00(.18)	.25(.18)
학력	-.19(.25)	-.21(.25)	-.12(.24)	-.13(.24)
거주기간	-.04(.12)	-.21(.12)*	-.25(.12)*	-.23(.12)*
활동기간	.10(.10)	.07(.10)	.15(.50)*	.02(.10)
직업-(자영업)	.04(.41)	-.15(.41)	-.05(.39)	-.21(.39)
직업-(주부)	-.09(.52)	-.48(.53)	-.15(.50)	-.10(.50)
직업(공무원)	-.20(1.17)	-.16(1.18)	.25(1.13)	-.39(1.13)
직업-(기타)	-.85(.48)*	-.80(.49)	-.71(.47)	-.79(.47)*
가족-(부부만)	-.53(.80)	-.45(.81)	-.52(.77)	-.58(.78)
가족-(2대)	-.15(.76)	-.18(.77)	-.24(.73)	-.36(.74)
가족(3대)	.05(.84)	-.17(.84)	-.05(.81)	-.21(.81)
주택유형-(연립다세대)	.74(.41)*	.66(.41)	.96(.40)*	.72(.40)*
주택유형-(아파트)	-.14(.34)	-.47(.34)	-.41(.33)	-.64(.33)*
주택유형-(상가주택)	.25(.61)	-.07(.61)	-.10(.59)	.00(.59)
주택유형-(기타)	1.43(1.17)	1.32(1.17)	1.15(1.12)	1.22(1.13)
-cons	10.22(1.45)***	11.67(1.37)***	8.74(1.39)***	9.64(1.34)***
N		439		
R-squared	0.13	0.12	0.19	0.19
F	3.64***	3.33***	5.75***	5.60***

*p<.05,**<.01, ***p<.0.001,

<표 37>은 사회적 자본의 변수인 신뢰, 참여, 호혜성, 네트워크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 모두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표이다.

분석전략으로는 종속변수를 공익성으로 두고, 사회적 자본의 개별적 구성요

소인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포함시켜서 각각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 가족형태, 주택유형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 직업, 가족형태, 주택유형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총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집단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뢰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집단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직업(기타)과 주택유형(연립·다세대)은 집단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13로 전체 변동의 13%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3.64($p<0.001$)으로 나와 모형1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사회적 자본의 참여가 집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변수 중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 직업(기타), 주택유형(연립·다세대)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모형2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12로 전체 변동의 12%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3.33($p<0.001$)으로 나와 모형2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분석 결과 집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현재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 수입,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 주택유형(연립·다세대)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0.19로 전체 변동의 19%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5.75($p<0.001$)로 나와 모형3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은 집단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에 따라서 집단효능감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타)과 주택유형(아파트)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4의 적합성을 살

펴보면, 결정계수가 0.19로 전체 변동의 19%를 설명하고 있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F값은 5.60($p<0.001$)으로 나와 모형4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무엇보다 위원들의 집단효능감을 필요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7개의 유형으로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어울림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주민자치유형은 지역안에서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안전 관리 및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될 것이다. 지역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이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이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단효능감의 중요성은 크다 하겠다.

V.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풀뿌리 자치의 산실인 자치회관은 다양한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조직인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실증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수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Putnam, Bourdieu, Coleman 등 사회적 자본의 대표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던 이론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얻어진 여러 요소 중 본 연구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를 구성요소로 축출하여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먼저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그리고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 이론을 살펴보았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을 선정하고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중범위 수준의 조직인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중 지역할당방식을 활용하여 선정한 주민자치위원 439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와 검증된 측정도구들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어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23곳에 대한 정량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치회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범위수준의 조직인 자치회관의 주민

자치위원에 대한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가 처음 시도되었음에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다. 그러나 자치회관이라는 중범위수준의 조직에서 사회적 자본을 다루는 연구는 없었으며, 특히 자치회관 수준에서 조직성과를 연구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도 처음이다. 아울러 최근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 이론을 토대로 측정한 연구도 처음이다. 그러나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 한계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회관의 객관적 자료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해 내는 성과는 의미있는 일이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1 객관적 자료분석

첫째,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인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은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는 다른 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사회참여는 프로그램 참여성과 공익성에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식 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참여와 프로그램 참여성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객관적 통계분석의 결과에서 사회적 자본의 사회참여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 중 프로그램 참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5.1.2 설문조사 분석결과

첫째, 신뢰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분석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신뢰수준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참여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성별, 연령, 주택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참여요인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은 50~60대가 사회적 욕구와 관련하여 참여요인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주택유형에 따른 참여요인의 차이는 공동주거형태가 늘어나며 참여에 대한 요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호혜성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주택유형과 주민자치위원활동기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주거형태는 단독주택과 달리 상호배려와 존중이 되어야 하기에 호혜성 요인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자치위원 활동기간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역의 리더로서 동네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계속해서 활동하다보면 상호 호혜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넷째, 네트워크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학력과 거주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잠재적인 자원의 형태인 네트워크는 상호신뢰가 깊어질수록 더욱 촘촘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학연과 지연에 따른 네트워크는 자칫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치성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결과 성별과 직업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자치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 분석 결과 주부와 자영업자는 시간적 제약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직업적 특징은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자치회관에서 다른 직업에 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므로 자치성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여섯째, 프로그램 참여성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여성에 대한 분석결과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참여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어르신 ·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공익성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익성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로 공무원이 공익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집단효능감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크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5.2.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들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5.2.1 이론적 시사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론을 제공하였으며,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이론적 기여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다.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자치회관이라는 중범위수준의 조직에서 사회적 자본을 다루는 연구는 없었으며, 특히 자치회관 수준에서 조직성과를 연구한 것은 처음이다.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측정으로 깊이 있고 정교하게 분석한 것도 처음이다. 또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사회적 자본 이론을 토대로 측정한 연구도 처음이다. 자치회관이라는 중범위수준의 조직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연구와 자치회관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적 연구모형설정은 향후 연구에서 학술적 활용도를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치회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치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주민자치

위원들이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식을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에 대한 객관적 자료인 정량적 지표 결과를 토대로 자치회관 수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치회관 수준에서의 조직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가운데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식 조사가 한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량적 지표로 보완을 시도했으며 결과적으로 자치회관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해 낸 것이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연구로서 이론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자치성, 프로그램 참여성, 공익성, 집단효능감과 관련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주민자치회에서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을 위한 모델과 흐름을 함께 하고 있어서 이론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2.2 정책적 시사점

자치회관은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지역중심의 커뮤니티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읍면동의 행정체제를 기능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하여 주민스스로 운영하도록 만들어졌다. 본 연구는 자치회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 상호간의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네트워크가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2013년 서울시 우수사례 평가 분야는 보육, 문화 공동체, 마을공동체, 환경·자원, 자원봉사, 청소년 공부방, 작은 도서관, 힐링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평가사례에서는 기존 분야별 평가와 유형별 평가에 기초한 세대별 평가를 제안한다. 실제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 남

녀의 경우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기존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이들은 마을 축제나 마을 행사에 참가하여 자원봉사로 활동하여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거나 여타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의 주역들이다. 사회적 자본은 자치회관에서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네트워크)로 지역주민 간 화합과 친목 그리고 주민자치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네트워크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우수성을 토대로 향후 자치회관 평가에서는 미취학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취학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성인 남녀를 위한 프로그램,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등 세대별 프로그램의 평가는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치회관의 전문적인 프로보노(재능기부활동) 활성화를 제안한다. 근래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다양하다. 각 자치회관도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은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인재뱅크를 만들어 전문가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이들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나 구 혹은 동 자치회관의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를 하나의 마을로 본다면 각 자치회관은 하나의 동네에 해당한다. 물론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실시하는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각각의 지역 현장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 간의 동질성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은 올라가며 수준 높은 교육으로 상호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므로 인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내에서가 아닌 서울시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간에서 활동하는 지역전문가를 영입하여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성 있는 상근 실무자의 배치와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현재 자치회관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임명한 간사나 자치회관 담당자에 의하여 사무처리를 하고 있다. 간사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치회관 담당 공

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회관 업무는 지속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정기적인 발령이 그렇거니와, 간사나 자원봉사자의 경우 개인 사정에 의하여 자치회관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전문적인 상근 실무자를 배치하지 못한다면 현재 활동 중인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있는 상근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상근 실무자를 도입하는 자치회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상근 실무자가 배치된 자치회관은 자치회관의 기능이 역동적이며 주민자치위원의 자치회관 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치회관의 조직성과가 높다. 이는 자치회관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성 있는 상근 실무자가 자치회관의 기초적인 업무를 이해하고 운영을 하여 자치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활성화되어 긍정적 성과를 내기 때문이다.

넷째, 자치회관의 사용료 기준에 대한 통일성이 요구된다. 각 자치회관은 문화·취미·교육·교양 강좌 등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수강료를 징수하고 그 수익금을 자치회관 운영에 사용한다.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같은 지역 자치구라 할지라도 각 가치회관은 프로그램 수강료가 차이가 난다. 각각의 자치회관은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지역의 편차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설정할 수 있으나, 우선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은 사용료 기준에 대한 통일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서도 재정 자주율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예시되어 있는 만큼 자치회관 사용료에 대한 통일성은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자치위원의 집단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자치회관은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운영 여부가 다르다. 그러나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이 활발한 자치회관을 보면 주민자치위원간의 집단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집단효능감이 높은 자치회관은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이나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율

이 높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공익성을 실천한다. 최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서도 자생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듯, 자치회관의 운영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간의 집단효능감이 중요하다. 자치회관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의 집단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 발견된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을 권역별로 구분한 지역할당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에서는 권역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의 개인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자치회관의 조직성과로 보았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자치회관 23곳을 대상으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조사한 이유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에 의하여 자치회관의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치회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병행해야 함이 한계로 드러났다.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자료수집과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FGI를 활용하여 질적인 연구를 병행한다면 자치회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연구기간에 대한 설정으로 6개월 혹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중기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의한 자치회관의 연구는 설문지 배부와 수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중기간에 의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한계점과 그것을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을 상술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향후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의 발로와 자치회관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치회관의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과 자치회관 성과평가에 객관적 자료로 사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고경훈 외. (2012).『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혜정. (2002).『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곽현근. (2007).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7.

김병준. (2011).『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태종, 박종민, 박정후, 양정호, 장원호, & 한준. (2006).『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태준 외. (2009).『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기홍. (2006).『한국농촌마을 사회적 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명숙. (2004). 지역 사회자본의 지방정치에 대한 효과.『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23-42.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한국사회학』, 38(6), 63-95.

김선희. (2008).『국토관리분야의 확충방안』. 국토연구원.

김순은. (2012). 한국의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자치행정연구』, 4.1 .pp.9-16.

김영기. (1991).『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수혜자평가의 결정요인』,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장학. (2009).『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종성, & 신원득. (200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행정논총』, 42(2).

김진웅. (2003). 방송공익성의 철학적,제도적 분석.『방송과 커뮤니케이션』, 6-31.

김찬동. (2013).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한국공공사회학회』, 11-34.

김태준 외. (2010).『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형식. (1999).『사회복지프로그램평가기법』.

남승하. (2008). 일반논문: 조직의 관리적 혁신의지 (innovation willingness)와 조직성과(performance)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42(1), 171-196.

노대명 외. (2010).『한국의 사회통합과 국민의식』.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

라휘문, & 한표환.(1999).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한국정책학회보』, 8(2), 93-114.

류석춘 외. (2008).『한국의 사회적 자본-역사와 현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선민.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선희. (2012).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선희 & 박병헌. (2012).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사회복지정책』, 39(2), 85-123.

박세경. (2008).『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원우·백수정. (2006). 집단의사결정과 집단성과에 대한 집단효능감의 부작용.『한국인사조직학회』. 59-80

박은숙 외. (2012). 호텔조직성격과 직무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관광경영학연구』 제16권 제1

호(50). 43-71.
박통희. (2010).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한국행정학보』, 44(1), 67-97.
박혜원. (2005).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집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희봉. (2012).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37-59.
배규환·이기재. (2010). 『통계조사방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배일섭 외. (1998).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배유일. (2004). 일반논문: 국가, 정책 및 사회자본-사회자본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13(4), 131-156.
서진호 외. (200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형 동주민센터 모델연구』.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성기환. (2004). 우리나라 재난구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 복지동향』, (69), 34-36.
소진광. (1999).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 척도로서의 사회적 자본. 『자치공론』.
오승은. (2012).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제22권 제2호(2012. 8): 65~90.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유정우. (2006). 연구논문. 『마케팅관리연구』, 11(3), 45-63.
윤두섭·오승은. (2005).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향-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5(단일호), 389-412.
왕태규. (2007). 『조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4(1), 63-90.
이동섭. (2008). 집단생산성의 핵심 변수인 집단효능감의 형성과 작용. 『한국생산성학회』, 22(2), 267-290.

이동원. (2013).『사회신뢰의 결과와 원인』. 한국경제연구원.
이동원·정갑영 외. (2009).『제 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이미숙. (2011).『사회자본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이병기. (2009).『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신뢰의 정책적 함의-』. 한국경제연구원.
이세규. (2010). 지역주민의 집단효능감이 지역의 브렌드 이미지, 브렌드 태도,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함평군을 사례 지역으로-『한국지역개발학회』, 제22권 제2호 163-184.
이숙종 외. (2009).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회』, 42(1).
이영현 외. (2006).『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종수 외. (2010).『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태화. (2013).『노인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 논문.
이효성. (1996).『한국언론의 좌표』. 커뮤니케이션 북스.
임우석. (2009).『사회적자본과 노인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기오. (2006).『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교육적형성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정기환 외. (2006).『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광호. (2005).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역량의 관계: 이론틀과 경험적 논의.『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0.
정기환·심재만·최경은. (2006).『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강혜, & 노형봉. (2013). 자아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집단효능감의 매개변수 역할을 중심으로.『기업경영연구 (구

동림경영연구)』, 50(단일호), 174-187.
조권중. (2010).『서울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조명희. (2013).『방송 프로듀서의 방송 공익성 인식의 내재화에 관한 연구-KBS 제작 PD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조희진. (2012).『공공기관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성공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주성희 외. (2012).『스마트 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1-129.
최기조. (2010).『사회적 자본과 지역발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별 효과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0(단일호).
최영묵. (1997).『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방송공익성과 심의제도』.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한국사회학』, 38(6), 97-132.1-21.
최천근. (2011).『행정관리가 경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국행정학보』, 45(2), 351-373.
최항섭 외. (2008).『IT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최희숙. (2008).『부모·친척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균태. (2003).『언론학적 관점. 시장원리와 공익성의 조화』, 한국광고주협회.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사회복지연구』, 33(단일호), 237-272.
한상우. (2009). 洞 자치를 위한 자치회관의 운영방안.『한국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 pp.929~946.

홍영란. (2005).『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외 .(2006).『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외. (2007).『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2008).『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 힌국보건사회연구원.
홍영란. (2009).『사회적 자본 수준·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진성 외. (2011).『사회적 자본』. 서울: KBS<사회적 자본> 제작팀.

2. 국외문헌

Ackoff, R. L. et al. (1981). A prologue to National Development Philadelphia : Univ. of Pennsylvania Social systems Sciences Department.

Adler, P. & Kwon, S. W.(2000).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 L. Lesser(ed.). Knowledge & Social Capital : Foundations & Applications. Boston : Butterworth Heinemann.

Aguilar, J. P., & Sen, S. (2009). Comparing conceptualization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7(4), 424-443.

Anderberg, D. & Balestrino, A.(2003). Self-enforcing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provision of education. Economica. 70.

Andrews, R. & Brewer, G. A. (2010). Social Capital and Fire Service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US States*. Social Science Quarterly, 91(2), 576-591.

Akdere, M., & Roberts, P. B. (2008). Economics of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10(6), 802-816.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Arrow, Kenneth J. 1972. "Gift and Exchang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 343-362.

Bain, K., & Hicks, N. (1998). Building social capital and reaching out to excluded groups: the challenge of partnerships. World Bank.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Barrera, M., & Ainlay, S. L. (1983). The structure of social support: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2), 133-143.

Behn, R. D. (2003). Why measure performance? Different purposes require different measur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5), 586-606.

Bjørnskov, Christian. 2006. "Determinants of Generalized Trust: A Cross-country Comparison." Public Choice 130: 1-21

Boix, C, & Posner, D. N.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686-693.

Boschken, H. (1994).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multiple constituen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54(3): 308-14.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Bourdieu, P. (1995). Las reglas del arte: génesis y estructura del campo literario. Anagrama.

Boyne, G. 2003. "Source of Public Improvement: A Critical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3(3): 367-394.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Brewer & Seldon. (2000). "Why Elephants Gallop; Assessing and Predic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Federal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10 science, 999-1023.

Burt, R. S. (1982). Toward a structural theory of action: network models of social Structure, Perception, and Action.

Carcach, C. & Huntley, C. J. (2002). Community participation and regional crim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Chanley, Virginia A., Thomas Rudolph, and Wendy M. Rahn. 2000." The Origin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Autumn): 239-57.

Chanley, Virginia A., Thomas Rudolph, and Wendy M. Rahn. 2001.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the Reagan Years and Beyond. In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ed. John R. Hibbing and Elizabeth Theiss-Mor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9-82.

Chase, R. S. & Holmemo, C. R.(2005).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and social capital: Designing a baseline survey in the Philippine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Citrin, Jack, and Donald Philip Green.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October): 143-53.

Citrin, Jack, and Samantha Luks. 2001. Political Trust Revisited: Deji Vu

All OvAgain? In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ed. John R. Hibbing and Elizabeth Theiss-Mor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9-27.

Cobb, S. (1976). Presidential Addres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pp. S95-S120

Coleman, J. S., and T.B. Hoffer. 1987. Public and Private Schools: The Impact of Communities. New York: Basic.

Coleman, J. S.(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asgupta, P., Goyal, S., Mäler, K. G., Putnam, R., & Serageldin, I. (2009). A matter of trust: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De Alexis de Tocqueville, A. (2000). Democracy in America, trans. Harvey C.

Dean, A., & Lin, N. (1977).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6), 403-417.

Druckman, D., Singer, J. E., & Van Cott, H. (Eds.). (1997). Enhanc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National Academies Press.

Epstein, P. D. (1992).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In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ed. Holzer, M., p. 161-193. New York: Marcel Dekker.

Feldman, Stanley. 1983. The Measure and Meaning of Trust in Government. Political Methodology 9: 341-54.

Fetlz and C. D. Lirgg(1998). Perceived Team and Player Efficacy in Hock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4). 557-564.

Freitag, M. (2003). Social Capital in (Dis) Similar Democracies The Development of Generalized Trust in Japan and Switzerlan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6(8), 936-966.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e Free Press : 구승회 역.「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Fukuyama, F,(1999).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IMF conference on Second Generation Reforms.

Gibson, C., Rande, A. & Early, C. (1996). Understanding Group Efficacy : An Empirical Test of Multiple Assessment Methods. Paper presented at the 11th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onference, San Diego, CA.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이윤희 · 이현희 역. 1991. 『포스트 모더니티』. 민영사

Gist, M. (1987). Self -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2, pp.472-485.

Gold, H. J. (1995). Third party voting in presidential elections: a study of Perot, Anderson, and Walla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8(4), 751-773.

Goss, W. 2001. "Appraisal, Pay and Rewards". Asi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13(1): 118-124.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78(6).

Grootaert, C. (1998). Child labor in Cote d'Ivoire: incidence and determinants (No.1905). World Bank Publications.

Grootaert, C.(2001). Does social capital help the poor? A synthesis of

findings from the local level institutions studies in Bolivia, Burkina Faso and Indones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otaert, C., Narayan, D., Jones, V. N. & Woolcock, M.(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 1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Halpern, David. 2005. Social Capital. Cambridge: Polity Press.

Healey, P. (1998). Collaborative planning in a stakeholder society. Town planning review, 69(1), 1.

Heinrich, C. J. 2005. "False or Fitting Recognition? The Use of High Performance Bonuses in Motivating Organizational Achievements".

Held, V. (1970).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interest. NY: London.

Hetherington, Marc J . 1998. The Political Rel0e20.vance of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December): 791- 808.

Jacobs, Jane.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Jobson, J. D., & Schneck, R. (1982). Constituent view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vidence from police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5: 25-46.

Kaplan, R. S., & Norton, D. P. (1992). The balanced score: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1: 10.

Keele, L. (2007). Social capital and the dynamics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2), 241-254.

Kenneth Newton.(200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March1997 40:575-586

Knack, S. (1992). Civic norms, social sanctions, and voter turnout. Rationality and Society, 4(2), 133-156.

Knack, S. (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72-785.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L. J. Hanifan.(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 pp.130- Vol. 67, New Possibilities in Education

Lawrence, Robert Z . 1997. Is It Really the Economy, Stupid? In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ed . Phillip Zelikow, Joseph N ye Jr.,a nd David C. K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1-32.

Lee, V. E., Croninger, R. G. (1996). Social Capital and children's development. The case of education. ED .pp. 412-629

Levi, Margaret.1988. Of Rule and Revenu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 Lin, K. Cook, and R. S. Burt(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Lin. Na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Capital Structure

Lin, N., Y. Fu & R. Hsung. 2008. "The Position Generator: Measurement Techinques for Investigations of Social Capital." pp.57~81 and Action. UK: Cambridge Univ. Press.

Lipman, Matthew. Thinking in Education. 2nd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Loury, G. C(1977), Dynamic Theory of Racial Income Differences in Women, Minoriti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ed. Pa, Wallace, AM La Mond, pp.153-186

Lowndes, V., Pratchett, L., & Stoker, G. (2008). Public policy and social capital.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677-707.

Maloney, Willam, Graham Smith, & Gerry Stoker. 2000. Social Capital

and Urban Governance: Adding a More Conceptualized 'Top-down'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vol. 48: 802-820.

Mansfield and Delba Winthrop.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301, 245-275.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370.

Massey, D. S., & Espinosa, K. E. (1997). What's driving Mexico-US migration? A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9-999.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3), 709-734.

McLaughlin, John A. & Jordan, Gretchen B. (2004). Using Logic Models. In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edited by Joseph S. Wholey, Harry P. Hatry, and Kathryn E. Newcomer: 7-3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Miller, Warren E . 1991. Party Identification, Realignment, and Party Voting: Back to the Bas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 5(June):557-68.

Moynihan, D. P., & Pandey, S. K. (2005). Testing how management matters in an era of government by performance manage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3): 421-439.

Narayan, Deepa(1999). Bonds and bridges: social capital and poverty (Vol. 2167). World Bank Publications.

Narayan, Deepa(2000). Voices of the Poor: Can Anyone Hear 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arayan, D., & Pritchett, L. (1997). Cents and sociability: Household

income and social capital in rural Tanzania.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Onyx. J. and P. Bullen,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6(1): 23-42

Osterling. K. L. 2007. "Social Capital and Neighborhood Poverty. Toward an Ecologically-Grounded Model of Neighborhood Effect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Vol.16(1/2): 123-147.

Ostrom, E. (1998). A behavioral approach to the rational choic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aiation, 1997.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22

Parker, L. E. (1994). Working together: Perceived self and collective efficacy at the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43-59.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Portes, A., & Sensenbrenner, J.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20-1350.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Putnam, R. D.(1993).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 외. 박영사.

Putnam, R. D.(1995a).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664-683.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정승현(옮김). 페이퍼로드.

Rainey, H. G., & Steinbauer, P. (1999). Galloping elephants: Developing elements of a theory of effective government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1):1-32.

Rogers, E. M. (1995). Diffusion of innovation. (4rd ed.). New York: The Free Press.

Rogers. (1990).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London; Longman

Roth, Felix, "Does Too Much Trust Hamper Economic Growth?", Kyklos vol.62, Issue 1, February 2009, pp.103-129

Rothstein, B., & Stolle, D.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459.

Sabatini, F. 2006. The Empirics of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Critical Perspective Working papers. 15.

Sahlins, M. D. (1972).Stone age economics. Transaction Publishers.

Schiff, M. 1992. "Social capital, labour mobility, and welfare: The impact of uniting states." Rationailty and Society 4.

Seijts, G. H,. G. P. Latham and G. Whyte(2000). Effect of Self - and Group- Efficacy on Group Performance in a Mixed-Motive Situation, Human Performance. 14(3).279-298

Serageldin, I. & Grootaert, C.(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P. Dasgupta & I. Sera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Shea, G. P. and R. A. Guzzo(1987a), "Group as Human Resources. In K. M. Rowland and G. R. Ferris (Ed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5, 323-356. Greenwich, CT: JAI Press.

Sorauf, F. J. (1962). The Conceptual Muddle. C. J. Friedrich(ed), The Public Interest. N. Y.: Atherton.

Stilwell, Frank(2003). Refugees in a Region: Afghans in Young, NSW, Urban Policy & Research Vol.21 Issue 3: 235-249.

Stolle, Dietlind. 2003. "The Sources of Social Capital." 19-42 in Generating Social Capital, edited by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Work Bank, Washington DC.

Stone, D. N.(1994). Overconfidence in Initial Self-Efficacy Judgements: Effects on Decision Processes and Performa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9(3). pp.452-474

Stuffle beam, Daniel L. & Shinkfield, Anthony J. (2007). Evaluation Theory, Models, and Applications. San Francisco, CA: Josey-Bass.

The World Bank(2002). Bosna and Herzegovina: Local level institutions and social capital stud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Valenzuela, A., & Dornbusch, S. M. (1994). Familism and social capita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exican origin and Anglo adolescents. Social Science Quarterly.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 Y.: John Wiley and Sons.

Wayne A. R Ley sand Charner Marquis Perry, 「Philosophy and the Public Interest」, Chicago Ⅲ : Committee to Advance Original Work in Philosophy, 1959, p. 44; 박정택, 「공익의 정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0, pp.284~285

Wellman, B. (1983). Network analysis: Some basic principles. Sociological theory, 1(1), 155-200.

Whittington, K. E. (1998). Revisiting Tocqueville's America Society,

Politics, and Associ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Bob Edwards and Michael W. Foley(eds.). Beyond Tocqueville: Civil

Wilson, James Q. & George Kelling. 1982.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Atlantic Monthly 249:29-38

Wilson, P. A. (1997). Building social capital: a learning agenda for the twenty-®rst century. Urban Studies, 34(5-6), 745-760.

Wolf, P. J. (1993). A case study of bureaucratic effectiveness in U.S. Cabinet agencies: Preliminary result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3(2): 161-181.

Wolf, P. J. (1997). Why must we reinvent the federal government? Putting historical developmental claims to the tes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7(3): 353-388.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Woolcock, M. (1999). Social Capital: The state of the notion. Paper presented at a multidisciplinary seminar on Social Capital :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Helsinki. April 15.

Woolcock, M., & Narayan, D.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Society and the SocialCapital Deb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pp.21-31).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Zimmerman, Joseph. Paticipatory Democracy: Populism Revisited. N.Y: Praeger, 1986.

Zucker, Lynne G.(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8: 53-111.

3. 인터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전광역시청	www.metro.daejeon.kr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www. socialcapital.kr
대한민국 청와대 블로그	http://blog.president.go.kr/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아시아 경제신문	http://www.asiae.co.kr/news/
한국 자치학회	http://cafe.naver.com/sgatown
안전행정부	www.mopas.go.kr/
EBS	http://www.ebs.co.kr

4. 내부자료

서울특별시 2012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3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서울특별시

부록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사회적 자본과 자치회관의 발전방안”을 위한 실증조사로 위원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어 위원님의 고견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의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제시된 응답요령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위원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무엇이 몇%’라는 식의 통계를 내는 연구목적에만 사용되고, 아울러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하여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설문의 내용에 빠짐없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월

한성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도교수 : 최 천 근
연 구 자 : 박사과정 김선희
e-mail: shipjack@naver.com
휴대전화 : 010-8703-2997

Ⅰ.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자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혹은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외국이민자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역이 다른 사람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나는 지역사회단체(민간단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역사회의 자선활동과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동창회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웃과의 친목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① 참여 안함	② 1곳	③ 2곳	④ 3곳	⑤ 4곳 이상
❖다음은 호혜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혜성: 서로 혜택을 누리는 성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도움을 청하는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보답을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의 사회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의 종교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의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자치회관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웃 자치회관과 교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 문항들은 자치회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혹은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치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치회관은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기획과 홍보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치회관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자치회관은 상근 실무자가 있다.	없다 ②			있다 ④	
4. 우리 자치회관은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자치회관은 자치회관 주관의 특색사업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프로그램 참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우리 자치회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자치회관은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율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자치회관은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율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자치회관은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참여율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자치회관은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율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공익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우리 자치회관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자치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자치회관은 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자치회관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자치회관은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집단효능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우리 자치회관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자치회관은 마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자치회관은 자율방범으로 지역사회안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자치회관은 공동체사업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자치회관은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Ⅲ.다음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혹은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1.위원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위원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이상

3.위원님의 학력은?

①초·중·고졸	②대졸	③대학원이상

4.위원님이 사시는 곳의 현거주기간은?

① 1년이상~5년이하	② 6년이상~10년이하	③ 11년이상~20년이하	④ 21년 이상~30년이하	⑤ 31년 이상~

5. 위원님의 직업은?

①직장인	②자영업자	③주부	④공무원	⑤기타

6. 위원님의 가족형태는?

① 1인 가족	② 부부만	③ 부부와 자녀(2대)	④ 조부·부부·자녀(3대)

7. 위원님이 살고 계신 주택 유형은?

① 단독주택	② 연립·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상가주택	⑤ 기타

8.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기간은?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4년 미만	④ 4년 이상~5년 미만	⑤ 5년 이상~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 운영 현황>

시도	주민자치센터설치읍·면·동수			
	계	읍	면	동
계	2,734	142	612	1,980
서울	423	0	0	423

명칭사용실태(단위:개소)					
계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기타
2,734	2,059	400	214	8	53
423	22	399	0	0	2

※ 기타 명칭은 주민학습문화센터,문화센터,복지회관,주민자치학습센터, 문화교육센터,자치사랑방,문화체육센터 등임

2. 운영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기타
계	39,457	2,470	20,806	4,006	1,879	7,413	2,536	347
서울	9,758	765	4,693	926	737	1,768	827	42

※ 프로그램 유형 구분(예시)

- 주민자치: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 문화여가: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취미교식, 생활체육, 스포츠, 댄스 등
- 지역복지: 건강증진, 마을문고, 경로, 탁아, 어린이놀이방 등
- 주민편익: 회의장 제공, 알뜰매장 운영, 생활정보제공 등

- 시민교육: 평생학습, 교양강좌, 외국어교실, 한자교실 운영 등
- 지역사회진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진로(가정문제)상담실 등

3. 2012년도 1일 평균 이용 인원(개소당)

(단위: 명)

구분	합계			만 19세 이하			만 20세~만 64세			만 65세 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87.9	25.8	62.1	11.1	4.8	6.3	58.3	15.5	42.8	18.5	5.5	13.0
서울	181.2	47.2	134.0	27.6	10.6	17.0	113.2	25.5	87.7	40.4	11.1	29.3

4. 청소년 대상 운영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총계	청소년 대상 외 프로그램	청소년(초·중·고)대상 프로그램					
			소계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지도 상담	외국어(한문) 교실	스포츠 교실	기타
계	39,448	34,470	4,978	503	84	666	659	3,066
서울	9,749	8,103	1,646	129	25	236	221	1,035

※ 기타 프로그램은 영화,종이접기,작은도서관,도예,영화감상,풍물,환경미화, 통기타 등임

5. 운영 참여 자원봉사자 수

구분	합계			강사			시설관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5,963	18,584	37,379	10,350	2,619	7,731	5,567	1,722	3,845
서울	6,478	1,517	4,961	763	217	546	1,172	286	886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보조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961	1,886	5,075	13,330	3,097	10,233	19,755	9,260	10,495
1,243	395	848	1,810	306	1,504	1,490	313	1,177

부록 3.

2013년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 결과

강동구	명일1동	【명원 밝음이 봉사단】 - 보육 ·보육 품앗이 공동체 “옹달샘 학교”를 졸업한 아동과 부모들이 “나눔과 교육”이 함께하는 나눔 공동체를 구성하여 예술행사 및 봉사를 통해 나눔 공동체 실현
서초구	방배본동	【너와 나 우리사이】 -문화공동체 방배사이길】 -화공동체·방배사이길(방배로42길)은 작고 예쁜 골목에 공방들과 갤러리, 카페 등 아기자기한 소품 매장들이 하나 둘 형성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와 도시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행복한 마을 조성.
마포구	공덕동	【이야기가 있는 ‘공덕 마실길’】 - 마을공동체 ·테마가 있는 마을길 조성 및 ‘골목길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간 소통하고 정을 나누며 주민이 하나되는 마을만들기
동작구	상도4동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환경, 자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맞아, 에너지 절약 운동,교육 등을 펼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자립을 추진
동대문구	회기동	【꿈이 영글어가는 3년의 약속】 - 자원봉사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원봉사단원과 함께 네팔 다딩 리프 마을에 희망의 커피나무 심어주기 봉사활동전개
강남구	세곡동	【세곡나눔장학회 운영】 - 청소년 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공군제15혼성비행단

		우수장병들이 맞춤식 일대일 공부방 운영
관악구	신사동	【꽃과 전래놀이가 있은 아름다운 벽화거리 조성】 - 환경 ·신사동 1464번지 일대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회색 옹벽이 주거환경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어 노후옹벽단장 개선 사업으로 사라져 가는 전래놀이를 코믹하게 테마화하여 세대간 문화의 벽을 허물고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
성북구	성북동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성북학개론】 - 마을공동체 ·서울성곽, 심우장, 간송미술관 등 역사가 살아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위치한 성북동을 종합 홍보대 설치,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관광안내 홍보부스 설치 등 홍보
강서구	가양2동	【구암마을 작은도서관 공동체】 - 작은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근거지로 하는 학부모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이 같이 밤새워 책을 읽고 같이 아침밥을 먹으며 마을 속에서 자라게 함
양천구	신월3동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 어르신의 힐링 앨범 ·어르신들이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 자서전을 제작함으로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힐링시간을 갖도록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함
성동구	마장동	【마장동, 지역 정체성 찾기】 - 지역 정체성 찾기 · 지역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전통과 문화가 깃든 품격있는 고장만들기 추진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Organization Achievement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Focusing on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s in Seoul-

Kim Seon-Hui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Members in a society can efficiently pursue their common objective by social capital, which is all social intangible assets occurring in a social context such as trust and standards that promote cooperation and transaction between peopl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factors of social capital on community autonomy center when there is a difference of opinion among the members of a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ill now, studies o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autonomy center were quite active; however, there was no study on the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autonomy center, which is intermediate range organization level.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 achievement of a community autonomy center exquisitely and in more depth by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The importance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which operates a community

autonomy center, is increasing and this is the first study on it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Evaluating a community autonomy center is desirable for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 achievement of a community autonomy center. However, the awareness of members in resident autonomy committee, who are the actual operating parties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operation, was regarded as the organization achievement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in this study. The awareness investiga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had limitation in measuring the organization achievement on the level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lement this, objective indicators were drawn by quantitative investigation on community autonomy centers, on which subjective awareness was investigated. It was meaningful that desired result of this study was obtained up to certain extent.

This study explored multiple theories on social capital, which have multi-dimensional concept. Regarding the organization achievement of a community autonomy center, theories in existing studies were reviewed and the study model and hypotheses were set up focusing on the variables, which are judged as having close impact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nalysis units of this study are 439 members in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in community autonomy centers, who were extracted in random from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s in Seoul by area-allocating method. A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with them on trust, mutual benefit, autonomy appeared as group efficacy and organization achievement, participation in program, public benefit and sense of group efficacy, which the member think as social capital. Then the hypotheses were tested by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hypotheses test was done by techn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on 23 community autonomy centers based on the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actual record of resident autonomy academy completion, program participation rate, program for vulnerable social group and local specialization program.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were obtained.

This study provided with theoretical contribution on the future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organization achievement. This study is important as a study that meets with the purpose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which is being enforced as a model. The study result proved that continuous study on the study model is required based on the limitation of study, which was exposed by the evaluation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organization achievement.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pro bono (talent donation activity) of capable members in resident autonomy committee should be expanded by vitalizing the specialized pro bono activity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The pro bono of a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 with rich experience and professional knowledge can become a positive opportunity for self and others.

Second, excellent-performing community autonomy center evaluation by generation and by class will realize a positive network of social capital. It can keep the members,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 based on existing evaluation by field and type, and develop the trust on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nto interest in community participation.

Third, it is required to assign full-time personnel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ducate them continuously. At present, the community autonomy center administration is being done by a person in charge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or a coordinator assigned by the chairma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Having them participate in continuous and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will organize

community autonomy center work and have the members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actively participate in the business.

Fourth, the tuition fee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should have uniformity. The tuition fees in the autonomous communities in Seoul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is possible to consider certain balance dependent on location; however, a standard on tuition fee is required. Therefore, uniformity of program tuition fee is required for successful performance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n the future.

Fifth, a program, which can increase the group efficacy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is required. Group efficacy is the driving force of community autonomy center organization achievement. As the importance of autonomous capability was emphasized in the recent model enforcement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he operation of a program, which can increase the group efficacy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would become the foundation for the advance of a community.

Above results of study will increase the interest on social capital of community autonomy centers, vitalize them and provide with theoretical contribution in the evaluation of community autonomy centers.

Keywords: Social Capital, Community Autonomy Center, Resident Autonomy Committee, Resident Autonomy Council, Organization Achievement